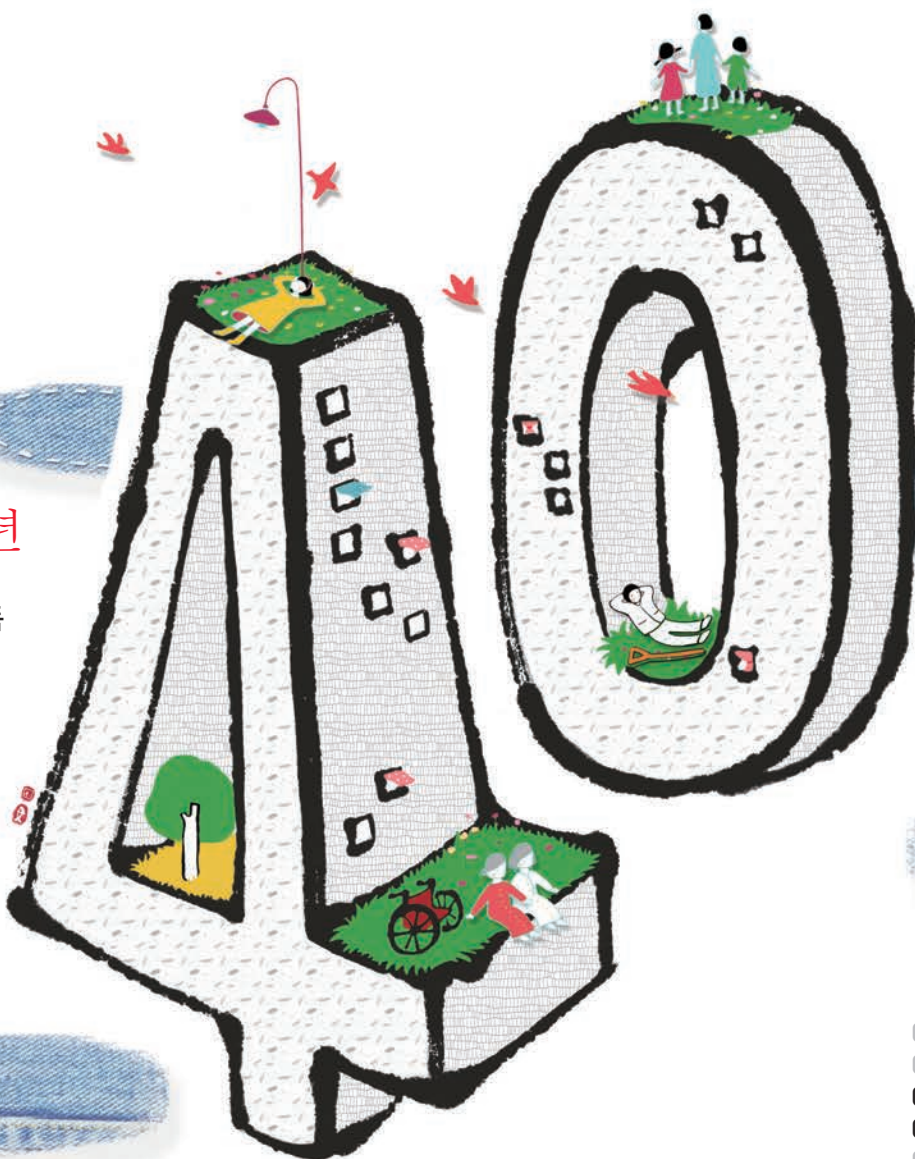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순천향’ 인술(仁術) 40년

부천병원, ‘일하기 좋은 병원’ 인증 획득
순천향이 살린 몽골 말기 암 환자
‘가슴’의 병을 넘어 ‘마음’을 치유 한다
구미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변신



2014

통합 의료원보 Vol.22



9 772234 1030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작은 약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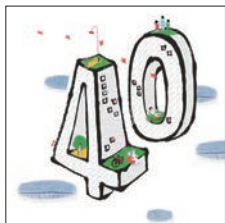
봄은 땅과 약속을 했다
나무와도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새싹을 틔었다

작은 열매를 위해
바람과 햇빛과도 손을 잡았다
비오는 날은
빗방울과도 약속을 했다

엄마가 내게 준
작은 약속처럼
뿌리까지 빛물이 스미어 들었다

글 | 노원호
사진 | 이영민





표지설명

순천향대병원 개원 40주년을 건물로
형상화하여 환자가 행복한 병원의
의미를 담았다.

작가·미호

CONTENTS

통합 의료원보 Vol.2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PHOTO ESSAY

작은 약속

Feature

- 02 special1 서울병원 개원 40주년
- 06 special2 '공동간병인제도' 도입
- 10 issue1 서울병원 이만혁 교수, 몽골 유방암환자 치료 성공
- 12 issue2 부천병원, '일하기 좋은 병원' 인증 획득
- 14 focus1 구미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
- 16 focus2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리노베이션

Confidence

- 18 history 후학·지인들, 서석조 박사를 말하다 ㉔
- 20 special family 김경순 부천병원 신경외과 주임간호사
- 22 field 병원 24시, 천안병원 외과 유방암클리닉
- 26 new medicine1 '홀로 있는 어린이, 공격적 성향 뚜렷' 연구 발표
- 28 new medicine2 인지기능장애 환자에게 딱 맞는 치료법 개발
- 30 new medicine3 목 디스크의 가장 이상적인 수술방법
- 32 doctor 김윤숙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 교수
- 34 knowledge1 시력교정을 위한 안내렌즈삽입술
- 35 knowledge2 결혼 전 신랑 웨딩 검진 필요
- 36 knowledge3 당뇨병 예방에 걷기가 최고
- 37 knowledge4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폐암 치료에 가장 효율적
- 38 moving story 옥동자와 미군 장교
- 40 visit 오주환 순천향의대 2회 오정형외과 병원장
- 42 news 순천향의대 동창회 소식
- 43 food1 봄철 '피로회복' 여왕, 딸기
- 44 food2 소아와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

Communion

- 46 romance 거장들의 스캔들 ㉔ 김유정 & 박죽주
- 48 korea restaurant 손수현
- 50 travel 김진국 교수의 걷기 예찬
- 52 book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 53 movie & stage 뮤지컬 '태양왕'

Communication

- 54 news 순천향 뉴스
- 59 schedule 진료 일정표
- 60 letter of thanks 감사 편지



〈순천향〉 애독자에게 알림

〈순천향〉에서는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차원에서 애독자 여러분의 기고와 수기를 받고 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물론 환자와 가족, 일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연락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기획실 02)709-9592 FAX 02)709-9594
E-mail: baekju1@naver.com



인간사랑 생명존중 40년, 순천향 100년을 향한 이노베이션

개원 40주년 맞은 서울 중심의 최고 의료기관 순천향대병원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 흉상

순천향이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4월 2일로 개원 40주년을 맞이하는 순천향대병원은 1974년 성실, 봉사, 연구의 원훈 아래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을 펼쳐가는 고향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인간사랑, 생명존중의 순천향(順天鄉) 정신으로 개원했다. 우리나라 의료법인 1호다.

정리_편집부

순천향대병원 개원 당시 국내 의료기관들의 시설환경이 열악했던 상황에서 다른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들이 놀라움을 표시할 정도로 최신식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의료진도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했다. 병원은 오래지 않아 큰 명성을 얻었고 다른 병원의 고급화 및 현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설립자인 고(故) 향설 서석조 박사(1921~1999)는 우리나라 신경과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주인공이며 한국을 대표할 만한 의료인 중에 한 사람이다. 1946년 일본 경도부립 의과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1949년까지 서울대의대 내과 조교를 거쳐 미국 코넬의대에서 인턴과 내과 전공의를 마친 후 뉴욕 시립 벨부병원에서 신경내과를 전공했다. 이후 연세대의대, 가톨릭의대, 고려병원, 백병원을 거쳐 1974년 용산구 한남동에 순천향종합병원을 설



모자보건센터 착공식(1983년 9월)



개원 초기 전경



1980년 초 전경

립했다.

이후 순천향은 현재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을 모체로 개원 4년 만인 1978년 학교법인 동은학원과 의학과, 간호학과를 갖춘 순천향의과대학을 설립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병원을 모태로 생겨난 대학인 순천향의과대학은 부단한 노력 끝에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다. 현재 7개 단과대학과 7개의 대학원을 거느리고 전국 4곳에 부속병원을 가진 내실 있는 대학으로 성장했다.

1979년에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개원에 이어 1982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개원하였고, 2001년에는 첨단 의료시설과 장비를 갖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개원하여 순천향의료원은 현재 3천 병상의 국내 굴지의 의료기관으로 발돋움했다. 각 병원은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천안병원은 1,500병상 규모의 제2병원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30개 진료과에 75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병원은 160여 명의 전문 교수진을 포함하여 1,600여 명의 교직원들이 환자 진료와 연구,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환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한 응급의료센터, 혈관센터, 유방센터, 신장센터, 심장센터, 소화기병센터, 소화기암센터, 척추센터, 관절경센터, 한국모자보건센터, 건강증진센터, 신경통증센터, 줄기세포치료센터, 소아알레르기호흡기센터, 무수혈센터 등의 전문센터를 활성화하여 효율적인 진료로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2012년 9월에는 신관을 오픈해 건강증진센터와 안이비인후센터가 새롭게 입주했다. 이후 공간을 잘 활용하여 외래 진료실과 검사실, 소화기병센터, 응급의료센터, 유방센터, 심장센터 등 외래구역 전체를 리노베이션해 새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2013년 7월에는 동북아시아 최신행 프로그램을 탑재해 빠르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한 첨단 방사선 암치료기 인피니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인피니티 가동에 따라 기존의 선형가속기와 로봇 암 치료기 사이버나이프를 연계해 현존하는 모든 방사선 치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3.0테슬라 MRI, 128채널 CT도 도입해 MRI는 총 2대, CT는 총 3대를 가동해 대기시간과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다. PET-CT를 비롯해 각 진료과에서 필요한 진단 및 검사장비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는 국제치료내시경 워크숍을 비롯해 매년 2회 개최하는 복부초음파 및 초음파

내시경 워크숍, 척추심포지엄, 줄기세포치료센터 및 임상분자생물학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줄기세포심포지엄, 무수혈외과 심포지엄, 당뇨수술 심포지엄 등을 개최하여 의학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변의 외국공관과 이태원 관광지 등 외국인들이 많은 특성을 살려 1999년부터는 전담 진료진을 배치한 국제진료센터를 운영하여 연인원 1만 4,0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으며, 2010년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공로패를 받았다.

2003년부터는 CEO를 위한 종합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건강과학대학원 건강과학(Health Science Academy) CEO과정을 개설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함께 병원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배출한 동문이 1,200명을 넘어섰다.

상급종합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진료협력센터를 개소하여 1, 2차 의료

기관과 여타의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의뢰해 오는 환자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720여개 협진병원과도 서로 윈윈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도 증진을 위한 QI활동과 고객관계 관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안내 도우미, 이동도서 서비스, 음악연주, 각종 전시회를 통해 환자들의 정서적인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40년 전통을 이어받아 더욱 새롭고 빛나게 만들 것

2011년부터는 용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병원을 위해 지역 중심 의료봉사 활동과 지역 복지시설에 대한 연중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순천향대병원은 ‘인간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병원의 미션을 수행하고, ‘서울 중심의 최고 의료기관’이라는 비전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서유성 병원장은 “순천향의 오늘이 있기까지 희생과 봉사, 열정을 불태워 주신 선배 교직원과 1,600여 명의 교직원, 순천향 재단 식구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병원은 이제 40년 전 우리 선배들의 마음가짐을 이어받아 제2의 개원을 천명하고, 리노베이션을 통한 이노베이션, 진료환경의 혁신, 미래 먹을거리를 위한 혁신, 우리 병원의 위상 혁신, 경영혁신, 마음가짐의 혁신으로 순천향을 더욱 새롭고 더 빛나게 만들어가겠다. 특히 외래 리노베이션의 여세를 몰아 병동 리노베이션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했다. 한편, 순천향대병원은 개원 40주년을 기념해 4월 2일 병원 내 동은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같은 날 저녁에는 용산아트홀 ‘미르’에서 순천향 마흔살의 이야기를 주제로 인기가수들이 출연해 토크콘서트를 연다. 지역주민과 순천향 가족, 홍보대사 등은 물론, 개원 시 의료진과 행정직, 간호부 직원을 초청해 사랑과 감사의 시간을 마련한다. 



부천병원 전경



천안병원 전경



구미병원 전경



‘공동간병인제도’... 환자와 병원, 상생 시스템

순천향대병원, 의료 서비스 질적 향상 등 만족도 높아

순천향대학교 중의료원이 시행하고 있는 공동간병인제도가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의사 등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환자의 심리적 안정 등에 효과를 발휘해 빠른 회복을 돕는 등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병원 입장에서도 공동간병인제도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보다 빠른 쾌유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청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 증대에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환자 의료 서비스 향상과 세심한 관리를 통한 빠른 회복 등이 현실화되면서 순천향대학교 중의료원이 시행하고 있는 '공동간병인제도'에 대한 호응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리_ 편집부

서울
병원

환자 세심한 관리 등 의료 서비스 향상

지난해 3월부터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적용하고 있는 공동간병인제도가 환자는 물론, 보호자, 간병인, 의료진 모두에게 큰 만족을 주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는 양질의 서비스를 종전보다 줄어든 비용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간병인도 인건비 향상으로 만족감이 높아졌다. 또한 혼자서 환자를 돌보는 개인 간병보다 어려운 일을 두 명이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세심한 간병까지도 가능하다.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은 의료진의 만족도 향상과도 이어진다. 병실에 항상 공동간병인이 환자 옆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환자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고, 병실도 깨끗해지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특히, 1:1간병의 경우 간병인들이 옷돈을 요구하거나 자리를 비우기도 해서 문제가 많았지만, 공동간병실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간병인 회사도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수익이 증가했다는 평가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현재 6인 병실 8개를 공동간병실로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암병동 중심이지만 최대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보통은 환자 3명에 간병인 1명으로 운영하고 중환자의 경우 2명당 간병인 1명을 적용하고 있다.

박미영 병동간호과장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 공동간병인제를 시행했는데 환자와 직원, 간병인 등 모두가 만족하는 시스템이라고 칭찬을 받게 돼서 기쁘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병원 전체를 보호자 없이, 간병인도 적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실제 공동간병실을 이용한 송영심 씨는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친정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공동간병실에서 치료받게 했는데, 간병하시는 분들도 친절하고 병실도 깨끗하고, 무엇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서 한결 부담을 덜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천안병원

경제적 부담 최소화, 신청 폭주

천안병원은 2013년 10월부터 ‘공동간병실’을 운영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간병비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효율적인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공동간병실은 1명의 간병인이 3명의 환자를 돌보는 병실이다.

현재는 정형외과 병동에 6인 병실 1개를 공동간병실로 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간병인이 6명의 정형외과 여성 환자를 돌보고 있다.

공동간병실은 운영 초기 이용률이 저조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도 줄고, 전문 간병인의 따뜻한 보살핌이 입소문을 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이어져 최근 신청이 늘고 있다. 천안병원은 현재 6인실 1개 규모로 공동간병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추이를 지켜본 후 점차적으로 병상수를 늘려나가는 한편 다른 진료과 병동에도 공동간병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부천병원

환자 만족도 ↑ 경제적 부담감 ↓

“큰 수술 앞두고 있는데 내가 아픈 것보다는 자식들 눈치 보느라 신경을 많이 썼어요. 병수발 들라고 지방에 발령 난 아들, 며느리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공동간병인제도가 있다고 해서 얼른 신청을 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되었는지... 수술을 받고 나서 같은 병실을 쓰는 할머니들이랑은 다 친구가 돼서 지금도 서로 마실 다니고 그래요.” -76세 이은옥 님-

부천병원은 정형외과 환자들을 위한 공동 간병인제도를 운영해 환자들에게 호응을 받고 있다. 약 4년 전 수술 후 보행이 불가능한 인공관절수술 환자들을 중심으로 운영한 것이 점차 보완과 교육을 거듭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정착했다.

외래에서 수술 후 간병인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간병인 시스템을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현재 61병동 6인실과 62병동 6인실 등 총 12개 병상 규모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동간병인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환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간병인이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다. 부천병원에서는 인공관절수술 환자들을 중심으로 공동간병제도를 실시하다 보니 간병인들이 환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수술 후 환자의 운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하고 전문적인 간병을 할 수 있다.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것도 매우 큰 장점이다. 공동 간병인 1인당 2명의 환자를 돌보기 때문에 간병비도 1:1 간병에 비해 1/2 수준으로 저렴하다. 또한 같은 병실 환자들끼리는 유대감이 돈독해져 함께 병을 이길 자신감과 용기를 얻는다. 감염환자는 입실을 금지하고 보호자 면회는 모두 30분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병실 관리도 철저하다.

62병동 송민숙 수간호사는 “공동간병인제도를 이용한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향후에도 간병인 관리에 만전을 기해 환자분들께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미 병원

구미병원, 가족의 울타리 사회와 함께 나눠

노인층 포함 전 연령대로 공동간병인제도 확대

간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처럼 간병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간호를 떠맡아야 하는 가족에게도 고통을 안겨준다. 하지만 돌봄의 책임이 있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의식이 커지면서 간병보험, 공동간병실 등 여러 간병제도가 최근 각광받고 있다.

구미병원의 경우 외지로 떠난 자녀들이 고향에 있는 부모 간병을 위해서 간병인의 손길이 절실했다. 간병은 필요했지만 1:1간병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호자들의 부담이 가중되던 중 간호부에서는 고민 끝에 공동간병이라는 대안을 내놓았다. 타병원에 비해 구미병원이 좀 더 발 빠르게 도입한 것은 지역 여건상 노인층이 많았기 때문이다. 2011년 첫 시행 후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교육을 강화해 좀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간병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였고 의료진과 보호자, 간병인 모두 환자 치료 및 쾌유에 집중한 결과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구미병원은 현재 다인실 2개, 13병상을 공동간병실로 운영 중이다. 내과 및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환자들이 대부분으로 수술환자 및 중증환자의 가족간병이 어려운 경우 공동간병실을 추천하고 있다. 장기입원 및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 환자의 이용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에는 노인층뿐만 아니라 대상 연령대가 낮아진 가운데 풀가동되고 있다. 한 보호자는 “병실을 지키지 못하는 죄송함이 있었는데 공동간병으로 비용은 물론 전문적인 간병이 가능해 빠른 회복을 보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입장이다.

구미병원은 병동별로 점차 확장하여 시대 흐름에 발맞춘다는 계획이다. 

“순천향에 처음 올 때는 휠체어에 의지해 간신히 입원했는데 이제는 계단도 걷고 춤도 추고 너무 좋아요.” 지난 1월 24일 건강한 모습을 퇴원하는 몽골인 유방암 환자 출롬바트(65세, 여) 씨. 그녀는 불과 6, 7개월 전만 해도 암조직이 온몸에 퍼져 삶의 희망이 없던 환자였다.

온몸에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져서 몽골 현지 병원을 찾은 그녀는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지만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길을 찾던 중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서울병원 국제진료 코디네이터는 출롬바트의 사정을 듣고 이민혁 유방센터장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민혁 교수는 “환자의 상태를 직접 봐야 알겠지만, 완치가 아니라도 생명을 연장하거나 통증을 완화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다양한 치료법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치료에 도전해 볼 만하다”는 의견을 줬다.

2013년 7월 1일, 출롬바트는 작은 희망을 안고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도착 즉시 서울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이민혁 교수를 첫 대면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본 모습보다 훨씬 인자하고 평온한 모습에 안심이 되었고 믿음직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입원 후에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유방초음파, 세침흡인조직검사, CT, PET-CT, MRI 등의 검사를 통해 암 진단은 물론, 타장기 전이 평가와 같은 정밀검사를 받았다.



몽골 말기암환자 ‘순천향’이 살렸다

순천향대병원 이민혁 교수, 몽골 유방암환자 치료시켜…제2의 인생 시작한 출롬바트 씨

정리_ 편집부



성공리에 말기암 치료를 마친 몽골인 출름바트 씨가 주치의 이민혁 교수와 환하게 웃고 있다.

여러 가지 검사를 종합한 결과 그녀의 상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다. 오른쪽 유방에서 처음 생긴 암은 피부조직까지 괴사시킨 상태였고 간, 폐, 뼈, 림프절까지 옮겨진 다발부위 전이성 유방암이란 진단이 나왔다.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던 것이다. 온몸에 암이 퍼져 있으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국소 치료 방법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항암치로나 내분비치료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항암치료를 위해서는 독한 항암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건강상태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거동조차 힘든 상황에서 무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민혁 교수는 환자의 컨디션과 전신 상태를 종합 판단해 항암 치료에 비해 비교적 독성이 약한 내분비치료를 본인과 가족들에게 권했다. 장기입원이나 체류가 불가능한 상황을 고려한 이민

혁 교수는 1차로 3개월간 경구약을 복용한 뒤 치료효과를 관찰하기로 하고 몽골로 돌려보냈다.

함께 동행했던 아들과 함께 귀국한 출름바트는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을 꼬박꼬박 잘 챙겼다. 아들도 수시로 약을 챙기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등 치료를 정성껏 도왔다.

조금씩 몸 상태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속단하기는 이른 상태에서 지난해 10월 7일 두 번째로 서울병원 유방센터를 찾았다. 처음 입원했을 때와 같이 각종 검사를 받고 처음 상태와 비교를 했다. PET-CT 영상에서 온몸에 퍼져 있던 암 조직은 눈에 띄게 줄었고, 각종 암 관련 수치도 좋아졌다. 치료를 시작하면서 점차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지만, 직접 치료경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는 ‘다시 살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3개월 후 서울병원 유방센터를 다시 찾기로 약속한 출름바트는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입해 몽골로 돌아갔다. 움직이기조차 귀찮고 힘들게 느껴지던 몸 상태에서 벗어나 수월하게 움직이게 되고, 조금씩 운동도 가능해졌다.

2014년 1월 말 세 번째 순천향대병원을 찾았다. 처음 올 때는 죽지 못해 왔는데, 이제는 새로운 희망을 가득 안게 되었다. 예상대로 검사 결과는 너무나 드라마틱했다. 전신 곳곳에서 검게 보이던 암 조직들은 80~90% 이상 자취를 감췄고, 크게 보이던 암 덩이도 눈에 띄게 작아졌다.

휠체어에 의지하던 몸은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고, 새까맣던 얼굴색도 활기를 되찾았다. 통증과 괴로움에 찌그렸던 얼굴은 밝아지고, 말을 잃어가고 신경질적이던 상황에서 벗어나 가족, 친지들과 농담도 주고받고 활기차게 웃는 시간이 많아졌다.

퇴원을 앞두고 이민혁 교수의 외래를 찾은 그녀의 얼굴에선 말기 암환자였던 사실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풍만한 몸매와 밝은 얼굴, 뜻을 알 순 없지만 아들과 즐겁게 주고받는 대화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이민혁 교수는 “의료진의 지도에 잘 따라준 환자에게 감사하고, 치료가 잘 돼서 무엇보다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 몽골에 돌아가서도 치료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밝게 생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민혁 교수에게 정성스런 선물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마친 출름바트는 “아프기 전에는 댄스클럽에 다니며 즐겁게 생활했는데, 암을 앓기 시작한 이후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이었다”며 “이제 마음껏 춤추고, 즐겁게 생활하고 싶다. 친구들에게 이민혁 교수와 순천향대병원을 열심히 홍보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일하기 좋은 병원’ 인증 획득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상급종합병원 최초 획득

환자를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의료기관. 하지만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정작 의료계 종사자들의 건강은 항상 적신호에 노출돼 있다. 이러한 가운데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을 획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이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리_ 편집부

지난해 12월 24일(화)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천지도원에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패 수여식이 개최됐다. 수여 대상은 바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동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조직해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현장 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사업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근골격계질환 예방, 뇌심혈관질환 예방, 직무스트레스 예방, 조직 차원의 생활습관 개선 등이다. 특히 건강증진활동을 위해 노사가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이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천병원이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배경에는 ‘SMILE 건강증진활동’이 있다. • 스트레스 관리(S) • 근골격계질환 관리(M) • 감염예방(I) • 저염식이요법(L) • 에코캠페인(E)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병원 조직에서 가장 많은 인력을 차지하

는 간호사를 고위험군으로 지정, 간호부를 중심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증질환 환자가 많은 부천병원에서는 그만큼 간호사들이 받는 직무 스트레스도 크다. 이에 부천병원은 신규 간호사 출신 학교 선배와의 멘토링 협약을 통해 간호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퇴사율이 낮아진 것은 물론 간호부 전체적으로 '파이팅' 하는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는 것. 멘토와 멘티의 관계는 단순업무에 대한 상담에서 벗어나 인생의 멘토와 멘티로 진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 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마음을 힐링한다. 교육은 서비스만을 강요하는 예전과 달리 '내 마음 지키기' 등 스트레스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SMILE 활동을 위해 각 담당자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조

근골격계질환 관리(M)도 철저히 진행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CS팀에서 스트레칭 동영상상을 제작, 배포해 전 직원이 자연스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노사가 협약을 통해 계약된 피트니스센터를 이용할 경우 체력단련비를 지원한다.

감염예방(I) 활동은 감염관리팀이 주관한다. 전 직원 인플루엔자백신 접종, B형간염백신 접종 등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고 있다. 무엇보다 감염의 강력한 경로로 지목받는 손 위생을 위해 손 위생 캠페인, 손 위생 모니터링, 손 위생 교육 등을 실시한다.

저염식이요법(L) 활동은 영양 팀을 중심으로 펼치고 있다.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저염식이 건강식단 조리 및 메뉴를 개발해 제공하는 한편, 교직원 전체가 이러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염기도 측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 다. 또한 국그릇 사이즈를 분류해 선택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코캠페인(E)은 녹색경영위원회 산하 에코플러스팀에서 주관하고 있다. 에코플러스 팀은 잔반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 2010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잔반량 0%에 도전하며 획기적으로 잔반량을 줄였다. 이외에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 전개, 소식지 발송,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한다.

이처럼 부천병원은 SMILE 활동을 위해 각 담당자 모두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각 활동을 성공리에 이끌어왔다. 또한 노사가 함께 신뢰로 뭉쳐 단합한 결과,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우수사업장 인증이라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너지가 모여 만든 SMILE 문화는 의료현장에서 다시 환자들에 대한 '친절'로 선순환되고 있기에 부천병원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다. 





오직 환자 중심으로 진화하는 ‘순천향’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 리모델링...고객 맞춤형으로 변신

질병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치료보다는 예방으로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는 데 진정한 가치를 둔다. 1997년 문을 연 구미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는 누적건수 10만이라는 경이로운 실적과 함께 지역 최초의 검진센터로 설립되어 환자가 아닌 고객을 향한 적극적인 행보로 발전을 거듭해 왔다.

글_ 편집부

친환경 고객 중심 공간으로 변화하다

2014년 봄, 구미병원에서는 변화한 종합건강증진센터를 만날 수 있다. 봄날과 함께 잘 어울리는 따뜻한 색으로 리모델링된 센터는 고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단연 돋보이는 것이 각 검사실과 대기공간이다. 고객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접수 데스크를 중앙으로 배치했으며 영상의학 검사공간을 한곳으로 집중시켰다. 가장 큰 변화는 소화기질환 검사실이다.

기존 본관 2층 내시경센터로 이동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 이전으로 고객의 편리함을 추구했다. 내시경센터 확장은 종합검진 내시경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 종합검진 예약 지연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이곳을 이용하는 사

람들은 환자가 아닌 고객이기에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마인드도 업그레이드시켰다.

스마트한 검진 프로그램으로 암은 물론 성인병 진단

건강검진에서 잡아내려는 질환은 크게 만성질환과 종양성질환(암)이다. 구미병원이 제공하는 기본 검진 프로그램은 한국인에게 흔한 암에 대한 건강진단, 운동, 금연, 음주관리 등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주요 성인병에 대한 포괄적인 건강진단으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장병, 간장질환 검사항목도 포함되어 있다. 스마트한 기본 검진 외에 여성정밀검진, 뇌신경질환정밀검진, 심질환정밀검진을 마련하여 기본검진 이외에



특정 질환에 대한 세부검사 및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추가검진(선택검사)로 고객 맞춤형 검진 제공

다양한 종류의 검사를 받고 싶지만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고민된다. 검사항목만 무한히 늘릴 수 없기에 구미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는 상담 후 성별, 연령별, 가족력, 기족질환 등에 따라 고객에게 맞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추가검진 항목을 제시한다.

각종 초음파, CT, MRI 등의 추가검사를 통해 보다 정밀하게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암진단장비인 PET-CT를 보유한 구미병원은 부위별 암검진이 아닌 한 번의 검사로 숨겨진 암세포를 발견할 수 있다.

구미병원 종합건강증진센터에서는 구미 기업체 및 관공서의 단



체 종합검진이 주를 이룬다. 총검진의 90%가 이에 해당한다. 이번 확장으로 건강을 챙기려는 개인의 종합검진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병원을 찾는 환자의 치료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센터의 노력, 오랫동안 순천향이 꿈꿔온 건강한 미래로 발돋움하고자 한다. 

소화기내시경센터 확장 오픈

특성화된 각종 시술 | 숙련된 전문인력 | 감염예방 및 안전한 환경

각종 소화기암과 관련 질환의 진단과 치료기능을 갖춘 소화기내시경센터는 계속 늘어나는 수면내시경 및 종합검진 대장 내시경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 운영방식을 탈피, 외래 내시경과 종합검진 내시경실을 통합하였다. 새롭게 문을 연 내시경센터는 6개의 독립된 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위장관내시경실, 대장내시경실, 초음파내시경실, 협대역내시경실을 갖췄다. 상담실, 대기실, 환자갱의실, 전처치실, 주사실, 회복실, 세척실 등으로 구성되어 환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

상부위장관, 대장 등에 대한 최첨단진단 내시경이 가능하며 특히 초음파내시경, 협대역내시경은 최고의 기종과 종류를 구비하여 일반 내시경으로 진단이 어려운 병변도 진단이 가능하다.



응급환자 위한 최적 시스템 갖추 생존율 높인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 리노베이션

정리_편집부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가 새롭게 태어난다. 공간 확장은 물론 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공간배치와 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이동을 최대한 줄이고,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진료와 처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2013년 8월부터 리노베이션 공사를 시작해 올해 3월 말까지 작업을 진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응급환자 전용 출입구를 만든 것. 본관 건물 앞 주차장을 없애고 응급의료센터를 옮겨 출입문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전엔 본관 주 출입구 바로 옆이 응급의료센터 출입문이



어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환자를 내리기 위해 구급차를 대면 본관 주 출입구를 막아 일반 환자나 보호자, 교직원들의 출입이 불편했다. 본관 주 출입구에 택시나 다른 차량이 있거나 보행자들이 많은 경우엔 신속한 환자 이송에 제약이 있었던 것을 말끔하게 해결했다.

새로 만든 출입문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안으로 들어오면 소아진찰실, 환자분류 및 진찰실, 처치실, 심폐소생술방(CPR룸)이 나란히 보인다. 특히 심폐소생술방은 출입구를 들어서면 바로 보이게 배치해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응급환자 전용 CT와 일반 X-레이도 응급환자 전용 촬영실을 센터 안에 설치해 5분 이내에 촬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빠르고 효율적인 검사로 환자의 상태 파악해 신속한 처치가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이전부터 시행하던 체외순환보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저체온 요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시스템도 갖췄다.



공간을 크게 확장함에 따라 CPR실과 처치실도 별도로 갖춰 환자의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했다. 응급수술실과 소아전용 진찰실도 제대로 마련했다. 진료구역과 관찰 구역을 확연히 구분하도록 세 구역으로 나눴다. 환자용 침상도 최신 고급형으로 바꿔 환자도 편안하고, 의료진도 이송이나 처치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병상도 20개에서 28개로 늘려서 번잡함을 줄였다.



보건복지부 선정 최우수 등급 받아

보호자 대기실을 넓히고 새롭게 꾸며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구역에서 혼잡을 초래했던 폐단을 없애고 조용하게 응급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작지만 구급대원을 위한 휴게공간도 마련했다. 커피나 음료수를 마시며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영주 응급의학과장은 “순천향 개원 40주년과 함께 시설과 장비, 시스템 모든 면에서 응급환자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게 돼서 기쁘다. 인간사랑의 순천향 정신을 가슴에 담고 수준 높은 응급진료 서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원과 격려를 당부했다.

한편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2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해 전체 대상 116개 중 최상위 등급을 받았다. 서유성 병원장은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대기하면서 응급환자를 보살피고 있는 우리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도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며 “지역주민과 응급환자를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향 설립자 향설 서석조 박사는 우리나라 의학계의 커다란 별이었습니다. 하늘의 순리에 따라 인간을 치료하고 고향의 눈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본 서 박사는 이 시대가 바라는 진정한 의료인의 표상이었습니다. 본지는 그동안 서 박사의 일대기에 이어 2014년 새해를 맞아 그가 남긴 업적에 대해 후학들과 지인, 서 박사를 평소 존경했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감동적인 얘기를 연재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이에게 감동과 교훈이 될 것입니다.

겸손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신 ‘향설’ 박사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존댓말,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와

글_ 이인수(前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

주신(酒神)인가, 주선(酒仙)인가

1965년 나는 선생님과 인연으로 순천향병원 신경외과 과장으로 부임했다. 그때는 더운 초여름이었는데 선생님은 나를 환영한다면서 술이나 한잔 하러 가자고 했다. 나는 선생님이 약주를 즐기시는 줄 몰랐다. 일과를 마치고 선생님을 따라 서린동에 있는 어느 맥주홀로 들어갔다. 그 자리에서 이사장이신 선생님과 병원장이신 김학현(金學賢) 박사님이 함께 했다. 평소에는 말이 없던 선생님도 약주가 들어가면 구수하게 말을 잘하셨다. 더욱이 선생님은 술기운이 오르자 맥주를 누가 많이 마시는지 내기를 하자고 하셨다. 나는 그래도 선생님보다는 젊은 혈기에 ‘좋습니다’ 하고 맞장구를 치고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내기의 법칙은 누가 맥주를 많이 마시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가 화장실을 더 늦게 가는가 하는 것 이었다.

선생님과 나, 그리고 김 원장님은 짧은 시간에 쉽 없이 맥주를 마셔냈는데 탁자 위에는 스무 병이 넘는 빈 병이 놓여 있었다. 나는 오줌이 마려 꼭 참았는데 선생님의 안내심에는 못 당할 정도였다. 결국 김 원장님이 먼저 일어나 화장실로 가셨다. 김 원장님은 선생님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그분도 약주를 아주 좋아했는데 내게는 이 일이 주선과 주신의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선생님은 약주를 좋아하셔서 병원 직원들 하고도 술 모임을 꽤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주선인지 주신인지를 놓고 한바탕 대화가 오가고 결론 없는 웃음으로 끝을 맺었다. 선생님은 사람을 끄는 힘이 대단했다. 그렇다고 일부러 설득하지도 않았다. 무뚝뚝한 경상도 사투리에 당신의 말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많이 듣는데도 보스 기질이 풍기셨고 한번 맺은 인연은 강한 리더십으로 인해 끊어지지 않았다.

선생님은 겸손의 미덕을 몸소 실천하신 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겸손의 미덕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상대방에게 존댓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언젠가 공식 모임에서



항설 서석조 박사가 신입생 환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훈화를 하면서 존댓말을 쓰시는데 정말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몸이 아파 선생님께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말을 낮추는 법이 없었다. 병원 안에서 지 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말을 하는 법이 없었으며 심지어 길거리에 만난 어린아이에게도 존댓말을 하니 선생님을 한번 만나면 교감이 이루어지고 존경심이 절로 우러나왔다.

당뇨병 모델

1977년 6월, 선생님이 서산의 삼화목장 진료소를 돌아보고 오는 길에 온양의 어느 호텔에 묵었다. 나는 선생님과 함께 유숙하는 것도 깊은 인연이라고 여기고 잠 속으로 빠져 들었는데 새벽녘에 일어나 보니 선생님은 그 시각에 인슐린 주사를 몸소 맞고 계셨다. 당시만 해도 당뇨에 문외한이던 나는 당뇨병에 으름가는 치료가 인슐린 자가 주사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아는 당뇨 환자 누구도 인슐린 자가 주사를 시행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기보다 쉽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30여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자가 주사를 맞았다. 선생님께서는 스스로 당뇨 환자의 치료 모델이 되고 스스로 실험자가 된 것이다.

선생님의 환자에 대한 살신성인 정신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하늘도 감동했음인지 보통 20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하는 당뇨병을 이겨내고 호상이라고 할 정도로 장수하셨다.

중국 병전(兵典)에도 “나를 버리고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이고 나만을 챙기고 살기를 애원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의 신념이 바로 병전을 몸소 실천한 본보기가 아닌가 싶다. 비록 선생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선생님이 남기신 업적과 성과는 한국 의학의 초석이고 결과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SCH

“달을 품고 자고, 달이 나를 따라왔다”

김경순 부천병원 신경외과 주임간호사, 베테랑 산악인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19년간 간호사로 복무한 김경순 주임간호사. 그녀는 집에서는 '산쟁이 엄마'로 통한다. 21년간 베테랑 산악인으로 살아온 그녀이기에 얻은 별명이다. 이런 별명이 그녀는 싫지 않다. 간호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산은 그녀에게 많은 힘을 주었기 때문이다.

글_하상원 사진_송은지



네팔 안나푸르나에 오르다

21년간 간호사로 환자들과 함께한 김정순 간호사는 또한 베테랑 산악인이기도 하다. 순천향병원에서 20년간 산악동호회 회원이자 부천시 등산연합회 회원으로 영남의 알프스, 지리산 등을 중주한 그녀다. 지난해 5월에는 드디어 해발 5,416m의 네팔 안나푸르나에 올랐다. 경기도생활체육회에서 주최하고 국민생활체육 경기도등산연합회가 주관한 '2013 경기도 네팔 히말라야 줄마탐 험대'에 당당히 선발된 것. 총 5차의 체력 테스트를 통과하고 의료담당으로 네팔 안나푸르나 탐험대에 참여했다.

“경기도 대표로 이번 탐험대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에서 최고의 추억이 되었어요. 3,000미터 이상 되는 산을 오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러 대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고 자연과 호흡하는 일은 정말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에 답아왔다. 산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네팔에 가서 정말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현지인들의 해맑은 모습은 산의 아름다움 그 이상이었습니다. 열악한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거든요. 현지인들의 순수함 속에서 사람도 때 묻지 않으면 하나의 자연이구나 싶었어요.”

김 간호사는 14박 15일이라는 네팔 안나푸르나 탐험대의 일정 속에서 ‘산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고 전했다.

“산은 곧 우리의 인생 같아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산에 오르지만 어느덧 심장이 터질듯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그 고통이 다시 큰 행복을 주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수영과 마라톤 등을 즐기는 만능 스포츠 우먼이기도 하지만 등산을 하는 일이 항상 힘겹다. 태백산, 영남 알프스 등을 중주하면서



김 간호사는 그녀의 고향인 경상북도 영천에서 뒷동산을 놀이터 삼고 머루와 다래를 먹고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는 항상 산이 함께 했다.

“어린 시절부터 산이 좋았어요. 병원에서 13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보냈거든요. 환자들이 세상을 떠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산에 올라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산은 제 간호사 생활의 큰 힘이었어요.”

그녀는 지금도 산에 가면 아름다운 경치를 사진에 담아온다. 함께 고생하는 간호사 동료들, 그리고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들과 그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되도록 많은 사진을 찍어와요. 동료들이나 환자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직접 가지는 못했어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기뻐하더군요.”

때 묻지 않으면 사람도 자연이다

그녀는 이번 네팔 안나푸르나 원정에서도 많은 아름다움을 사진

발톱이 빠지고 다시 나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참아내게 해주는 것이 산행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이고 자연의 아름다움이라 설명했다.

“산은 조용히 귀 기울이며 이야기를 건넵니다. 많은 세상의 이치를 알려줍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해돋이 보러 3번을 올라갔지만 단 한 번만 해돋이를 볼 수 있었어요. 전날 산장에 누워 하늘을 보니 달이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 전 그 달을 품고 잤습니다. 해돋이를 보고 내려올 때는 그 달이 절 따라왔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김 간호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족, 그리고 간호사라는 천직과 산”이라며 “70세가 넘어도 항상 산을 오르며 인생을 배울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못 가본 곳이 있어요. 바로 백두산입니다. 꼭 백두산 정상에 한번 서고 싶어요. 그 아름다움도 많은 동료들과 환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업을 사랑하고 환자를 돕고 동료들 감싸는 그녀가 하나의 아름다운 산 그 자체였다. 

가슴의 병을 넘어 마음속 작은 아픔까지 치유하는 참인술의 현장을 가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외과 유방암클리닉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는 년 100건 이상의 유방암 수술이 진행된다. 외과 유방암클리닉이 지금까지 새삶을 찾아준 유방암 환자들만 수천명에 달한다. 이는 충청권 대학병원 중 1~2위 수준으로 서울권 대학병원과 비교해도 조금도 뒤지지 않는 기록이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의 유방암클리닉이 높게 평가받는 이유는 국내 유방암 수술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민혁 교수의 제자들로 구성된 탄탄한 의료진이 있기 때문이다. 탄탄한 실력을 바탕으로 가슴의 상처를 넘어 마음의 상처까지 보듬는 순천향대학교 외과 유방클리닉의 24시를 둘러본다.

글_ 김남규 사진_ 송은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유방암 치료 전문병원이다. 천안병원의 이 같은 확고한 인지도는 실력있는 의료진 양성과 보강,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병행한 결과다. 특히 2011년 100억 원대의 최첨단 방사선치료 장비 ‘노발리스티엑스’를 도입한 게 주효했다. 이 장비는 정밀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 유방암 환자의 완치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첨단장비 도입과 함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진의 다양한 활동도 눈에 띈다.



종양혈액내과, 병리과 등이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최선의 치료를 위해 서로 의논하고 있다.



유방암클리닉 김성용 교수가 유방암 환자 진료 중에 있다.



다. 일례로 환자의 출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무수혈 치료 노하우는 천안지역뿐 아니라 국내 대학병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천안병원 유방암클리닉이 주목받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첨단장비와 앞선 의술을 뛰어넘어 환자를 가족처럼 보듬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의료진의 따뜻한 가슴이 바로 그것이다. 환자를 친가족처럼 대하고, 환자의 병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한 노력보다 환자의 자살한 이야기도 남김없이 들어주며 함께 아파하는 의료진이다. 환자를 치료하기에 앞서 환자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성용 순천향대천안병원 외과 교수를 포함한 10여 명의 유방암클리닉 의료진.

그들의 하루를 통해 서울 대학병원만을 고집했던 암환자들이 자연스레 이곳으로 발길을 돌렸던 당연한 이유를 확인해 본다.

07:30

평소보다 이른 시간 출근한 김성용 교수와 한선욱 교수가 오전 예약환자 명단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명단에는 총 28명의 환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모든 환자의 이름이 낯설지가 않다. 예약 환자의 상당수가 이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했고, 이후 수년간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김 교수는 진료기록을 보며 메모지에 무엇인가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동안 상담을 통해 알게 된 환자들의 가정사 등 개인적인 고민 내용을 되짚어보기 위해서다.

08:00

천안병원 외과 유방암클리닉의 최고참이자 13년차 전문의인 김성용 교수가 오전 회진을 위해 10여명의 의료진을 이끌고 본관 5병동으로 향한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복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의료진 앞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환자와 나누는 다정한 대화



유방암 수술 집도중인 한선옥 교수



병동 입원환자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는 김성용 교수

나타난 한 노모가 김 교수의 손을 낚아채듯 덥석 잡고는 놓아줄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기력이 많이 쇠한 듯 보이는 환자복 차림의 이 노모는 잘 들리지도 않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연거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곱씹고 있다. 회진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서둘러 발길을 돌려야 하지만 오히려 김 교수는 노모의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꼭 잡아주고 “어디 불편한 곳 없으시죠?”라는 말로 회답하며 웃음을 보인다.

08:10 의료진이 본관 5층 병동을 찾았을 때, 일부 환자들은 아침식사를 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이를 놓치지 않고 식단을 점검하며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기 시작했다. 때마침 아침식사 중이던 이선옥 환자는 “최근 소화가 잘 안 된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불편한 몸 상태를 설명한다. 김 교수는 환부를 살펴보고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면서 불안해하는 환자를 안심시켰다. 이어 그는 “정밀검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확연히 좋아진 게 보인다”는 말로 환자를 다시금 안정시켰다.

09:00 외래진료가 시작되자 대기석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80세 고령의 한 여성 환자가 진료실로 힘겨운 발걸음을 옮겼다. 유방암 수술을 받은 지 8년이 지난 이 여성은 김 교수에게 유독 특별한 환자다. 노모의 가족은 모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상태다. 8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던 시기 역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아마도 당시 70세 고령의 여성이 보호자 없이 홀로 겪어야 했던 유방암 수술은 쉽게 극복할 수 없었던 시련이었음에 분명했다. 이런 이유에서일까 김 교수에 대한 이 노모의 애정은 남달랐다. 이날도 노모는 유방암 수술에 대한 정기검진 결과보다 지난 한 달 동안 겪은 삶의 다투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다.

12:00 당초 예약 환자는 28명이었지만 벌써 70명이 넘는 환자가 진료실을 다녀갔다. 아직도 진료실 밖에는 20여 명의 환자가 순번을 기다리고 있어 오늘도 점심식사를 제때 한다는 기대는 애당초 접어야 하는 모양이다.

13:00

예정돼 있던 한선옥 교수의 유방암 수술이 시작됐다. 의료용 침대에 누운 채 수술실로 들어서는 40대 중반 여성 환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하다. 그러나 삶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그녀는 가족들에게 애써 미소를 지어 보이며 스스로를 다잡고 있었다. 수술이 두 시간 가량 계속되는 동안 그녀를 기다리는 가족들은 자리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할 뿐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마스크를 쓴 의사가 환자의 가족에게 다가와 수술이 성공적이었다는 말을 건네자 환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한 여성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14:30

같은 시간, 외래진료를 하고 있던 김성용 교수는 드디어 마지막 오전 진료 환자를 받았다. 예상보다 많은 환자가 몰려 2시간 30분가량 늦어진 것이다. 오늘 하루 1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한 김 교수의 목소리는 갈라지기 시작했다. 이 정도면 지칠 법도 한데 이국적인 외모의 필리핀 환자를 맞이하는 김 교수의 표정에서 반가움이 묻어났다. 약 5년 전 이 여성이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는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였다. 당시 여성의 시어머니는 “며느리 외국에서 사왔는데 병 나서 쓸모없게 됐다”며 울분을 토했고, 남편 역시 유방암 수술을 받게 된 이 여성을 외면했었다. 사정을 딱히 여긴 김성용 교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지



긴장감이 감도는 수술실

금 이 여성은 건강한 삶을 살며 행복한 가정을 지키고 있다. 처음과 달라진 것은 이제 세 아이의 엄마가 됐다는 것과 한국말이 능숙해져 혼자서도 병원을 찾을 수 있게 된 점이다.

16:00

순천향대학교병원 유방암클리닉과 중앙혈액내과 그리고 병리과가 함께하는 컨퍼런스가

시작됐다. 이날의 주제는 치료에 차도가 없는 한 환자에 대한 고민이었다. 새로운 신약을 써보자는 의견이 제기됐고 곧바로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한 시간가량 계속된 컨퍼런스는 몇몇 환자에게만 약 3개월 정도 신약을 써보자는 쪽으로 결론지어졌다.

17:30

하루 일과 중 마지막 업무인 오후 회진이 시작됐다.

의료진이 항암치료를 받는 박미정 환자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침대에 누운 채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곧이어 의료진의 기척을 느끼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이내 다시 힘없는 몸짓으로 본래의 자세로 돌아갔다. 독한 약물과 방사선 치료 탓에 그녀의 머리카락은 단 한 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고갈된 그녀의 기력으로 초라해진 외모를 감추기 위해 모자를 쓰는 것도 버거워 보였다. 의료진이 그녀에게 “많이 힘드시죠. 기운을 내세요”라는 짧은 말을 건네자 그녀의 초췌한 눈시울에는 이내 촉촉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오후 회진을 준비중인 의료진

Mini Interview

김성용 천안병원 유방암클리닉 교수

“환자는 또 다른 나의 가족입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를 지나다가 원장 선생님과 마주쳤는데 “김 교수 아직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어?”라고 가벼운 농담을 던지시더군요. 자주 보기 힘들다는 우회적인 표현인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바로 옆방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동료 의사와도 언제 대화를 나눴는 지 기억이 나지 않더군요. 가족과의 대화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웃음). 실제로 제 일과의 대부분은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제가 환자와의 대화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유방암 환자의 특성 때문입니다.

유방암 환자는 중산층이 적고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층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저소득자의 경우 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크고 저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혼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의사와 환자가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말 한마디’의 위료가 전부입니다. 가족보다도 더 오랜 시간을 함께 하는 가족 같은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는 것이 앞으로도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은주 천안병원 외과전담 간호사

“기억 속에 남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유방암 수술 환자의 특징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수술이 성공적이었다고 해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는 병원을 찾는 장기환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수년 동안 병원을 찾기 때문에 이제는 얼굴만 봐도 이름을 외우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제 의지보다는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14년 동안 외과에서만 근무했는데 그동안 가장 보람된 일은 환자가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거동도 못했던 한 환자가 수년 동안 치료를 받고 완쾌돼 퇴원한 일입니다. 그 환자분이 퇴원하면서 제 손을 꼭 잡고 감사하다는 말을 건넸는데, 당시 저는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처음으로 이 직업에 보람을 느낀 시점이기도 하고요.

최근 저는 대화 기법이나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짜증을 낼 때가 있어서요. 이럴때 마다 저는 그때의 그 환자분을 생각하곤 합니다.

이민숙 천안병원 유방암 수술환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삶의 희망이 됐어요”



2011년 유방암 수술을 받아 올해 햇수로 3년이 됐어요.

오늘 병원을 찾은 이유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처음에는 검진 자체가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매번 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을 때마다 내가 이제 한 발 더 삶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기쁨을 느낍니다. 더 이상 나는 유방암 환자가 아니라 조금씩 정상인이 되고 있는 기분이라구요.

유방암 판단을 받았을 당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고 많이 좌절했어요. 항암치료를 시작하고부터는 삶의 모든 부분이 망가지기 시작했지요. 하루는 치료를 받고 구토를 하는데 이곳 의사 선생님이 등을 두드려주시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자고 위로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씀 한마디에서 삶의 큰 희망을 찾았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한 이유 역시 이곳 교수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는 어린이, 공격적 성향 뚜렷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영 교수팀,
혼자 있는 시간 많을수록 정신장애 증가 연구 최초 발표



이소영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정민이와 3학년 정연이는 하루 3시간 이상 컴퓨터 게임과 스마트폰 게임을 한다. 학교에서 돌아와 맛벌이를 하는 어머니가 퇴근할 때까지 주요 놀이는 게임이다. 정민이와 정연이는 남매지만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과 TV를 보는 것이 전부일 뿐, 함께 대화하는 일도 거의 없다. 엄마가 돌아오기 전까지 배가 고프면 라면을 끓여먹는다.

정리_편집부



최근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초등학생 328만 명 중 3.7%인 12만 2,351명(2011년 기준)이 1주일에 5일 이상 하루 5시간 이상을 보호자 없이 홀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부모의 관리감독 없이 방치되는 ‘나홀로 집에’ 어린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잘 계획된 자유 시간은 아이들에게 이롭지만 장시간의 계획적이지 못한 무감독 시간은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소영 교수 팀이 부주의와 문제행동 등이 많은 고위험군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감독 시간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무감독 시간이 증가할수록 정신장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감독 시간을 양적으로 환산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는 SSCI 학술지 〈Child Abuse & Neglect〉에 게재됐다.

부모의 관심과 관리 감독이 중요

이소영 교수팀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경기도 지역 210곳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 14만 4,747명과 4학년 15만 4,169명 등 총 29만 8,916명을 대상으로 과잉행동장애 평정척도(ARS)와 아동 정서·행동발달 검사(CPSQ)를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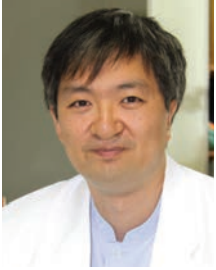
검사에서 각각 18점과 13점 이상인 학생들을 고위험 학생으로 정의했을 때 1학년생 중 1,340명(1.5%), 4학년생 중 1,930명(1.25%)명이 고위험 학생으로 분류됐다. 고위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인의 지도감독 없이 혼자 지내는 시간(이하 무감독 시간)을 • 없음 • 1시간 미만 • 1~2시간 • 2시간 초과 등 4가지로 분류해 체크하도록 한 후 해당 학생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인구 통계학적 자료 및 문제 행동에 대한 설문을 기입하도록 했다. 연구 결과 고위험 학생 3,270명 중 1,876명(57.4%)의 아이들이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무감독으로 보낸 적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710명(21.7%)은 하루 2시간 이상 혼자 지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위험 학생들에서 무감독 시간이 늘어날수록 공격적인 행동과 비행과 같은 외현화 문제뿐만 아니라 우울과 불안, 신체적 호소와 같은 내재화 문제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과 이소영 교수는 “부모를 대상으로 무감독 시간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리고 최대한 아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대사회에서 가정 내 무감독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전적으로 부모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과 학교가 팀을 이뤄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이소영 교수팀과 경기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소장 김현수), 대한소아청소년정신과 학회(회장 이정섭), 경기도 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이 연계해 실시했다. 

주요 용어 정리

- **공격적 행동** : 언어 및 신체적 공격을 포함하는 폭력적인 행동
- **비행** : 사회적 규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벗어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탈행위를 일삼는 경우
- **신체적 호소** : 특별한 신체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의 정서적인 문제로 인하여 신체적 통증이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
- **내재화 문제**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내면적인 정서적 문제
- **외현화 문제** : 공격, 과잉 행동, 불복종, 짜증 등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상의 문제



글_ 황성일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뇌졸중과 뇌손상 환자들은 팔, 다리 근력이 좋더라도 기능적으로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인지기능 장애 때문이다. 일부 연구에서 뇌졸중 환자의 60%가량이 기능에 영향을 줄 정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소아 뇌성마비에서도 인지 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에는 혈관성 치매나 퇴행성 뇌질환으로 인지기능 장애가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인지기능에 문제 생기면 사회복귀와 일상생활 어려워

인지기능은 사람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배우고, 언어를 사용하는 의식적인 정신 기능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인지기능 장애 환자에게 딱 맞는 치료법



즉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다양한 상황, 자극과 마주치면서 적응하기 위하여 들어온 정보를 처리하고 인식하여 적절하게 반응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지각, 추론, 판단, 직관 및 기억에 대한 개인의 인식 정도를 포함하며, 지식을 습득하는 정신적인 행위의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억, 학습, 정보처리, 주의력, 동기부여 및 행동개시 능력의 형태와 재 기억으로 인지기능이 구현되어야 적절하게 행동 할 수 있다. 인지기능 향상치료법에는 약물치료와 재활치료가 있다.

초기 기억력 감퇴가 주된 증상이면 약물로 기억력을 유지하거나 완화하는 치료가 이뤄진다.

재활치료는 주의력, 기억력, 집행력 등을 평가하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시행하는데 치료에 앞서 환자의 인지영역 중에서 장애가 되는 영역을 파악하여 그 영역에 집중하는 재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억장애는 대부분 주의력 장애와 작업 기억력 저하가 주된 문제이므로 주의력과 집중력의 호전 치료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인지훈련은 손상된 인지영역을 회복하는 치료와 정상적으로 남아 있는 기능을 이용하여 기능장애를 보상하고 대체시켜 주는 두 방향으로 치료가 진행된다.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

전통적인 인지재활 치료는 대부분 치료사와 환자의 개별적인 면담과 학습으로 시행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를 이용한 전

산화 인지재활(Computer-Based Cognitive Rehabilitation)이 보편화되고 있다. 전산화 인지재활 치료는 게임형식의 콘텐츠를 제공, 환자 스스로 시행할 수 있으며 단편적인 학습내용을 집중적이고 반복적으로 훈련하여 두뇌기능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환자의 수행 결과에 대한 정확한 기록으로 비교 분석이 가능해 치료경과에 대한 관찰과 임상적 연구에도 매우 유용하다.

초기 프로그램은 영어권에서 개발되어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최근 한국판이 개발되어 국내 문화와 정서에 맞는 그림과 디자인을 적용한 프로그램으로 보급되고 있다.

치매환자, 뇌손상환자, 장애아동의 인지기능 향상

구미병원이 도입한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은 일상적인 작업 영역에서 치료를 재현할 수 있고, 다양한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훈련은 난이도별, 세부항목별로 구분되어 개별 환자의 인지능력 수준에 따라 적절한 자극을 준다. 또한 모든 상황이 그림으로 되어 있어 성인 환자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학습장애 아동들이 훈련하기에도 적합하다. 소아재활영역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다.

구미병원 재활의학과에서는 뇌병변 환자들을 포함한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인지재활치료를 다양하고 집중력 있게 적용할 수 있어 맞춤형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아재활치료실 확대강화, '구미 유일의 소아재활센터 갖추다'

치료환경 개선으로 장애아동 재활의료 욕구 충족

구미병원이 2014년 3월, 소아재활치료실을 확장하고 전문적인 소아재활 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소아만을 위한 별도의 치료실과 발달장애 및 뇌성마비 아동들을 위한 재활시설과 장비도 도입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운동치료실 공간도 대폭 확충했으며 인지치료실을 신설했다.

그간 구미지역은 장애아동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소아재활치료와 의료기관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구미병원은 2011년도부터 소아재활치료를 시행해 왔지만 독립적인 치료공간과 전문인력의 부재로 확충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2013년 부임 한 박래경 병원장은 장애아동들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소아재활치료실 확보와 전문치료시스템 구축이라는 성과를 이뤘으며 구미지역 유일의 소아재활치료센터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소아재활치료는 소아장애 관련 질환의 뇌성마비, 발달지연, 외상성 뇌손상, 척수성 근위축증, 기타 신경학적, 정형외과적 문제를 가진 아이들이 대상이며 순천향병원은 재활의학과학회에서 인정하는 중추신경계 발달치료와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및 소아작업치료 시스템을 도입하여 치료성고를 높이고 있다.



목 디스크의 가장 이상적인 수술방법

‘척추체 관통 목 디스크 수술’



글_ 심재준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척추신경외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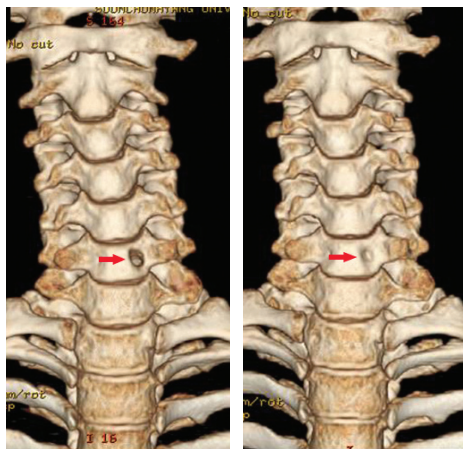
흔히 목 디스크라 불리는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은 추간판에서 터져나간 디스크 조각이 신경을 눌러 감각과 운동능력이 감소하는 질환이다. 즉 팔의 감각 저하나 심한 저림감 및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서 근력이 떨어지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해야 한다. 증상이 매우 심한 경우에는 경부 MRI를 통해 정확한 병소를 확인하고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지금까지의 수술적 치료는 크게 목 앞으로 하는 방법과 목 뒤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나뉜다. 다들 여러 문제점과 제한점이 있다. 뒤쪽에서 접근하면 병변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 근육 손상의 위험과 척추 앞부분으로의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앞쪽에서 접근하면 큰 근육들 사이 틈새로 살짝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이므로 쉽게 아물고, 근육 손상은 피할 수는 있지만, 터져나온 추간판 조직을 제거하며 병소까지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추간판 보존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 수술법들 ... 보완해야 할 문제점 많아

문제는 또 있다. 이번에는 병소에 접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거했던 ‘추간판이 있었던 공간’을 메우는 방법에서 생기는 문제다. 공간을 메우는 첫 번째 방법은 빈 공간이 된 위-아래 경추 사이에 뼈나 대체물 등을 넣어 고정하는 ‘골유합술’. 안정성이 입증된 오래된 방법이지만 수술부위의 분절운동 소멸로 인접 부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해지고 추간판 탈출증이 추가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인공 디스크를 삽입해 어





수술 직후 경부 3D CT 사진

수술 2개월이 경과한 경부 3D CT 사진



느 정도 분절운동을 유지시키는 방법이다. 이 경우도 드물지만 골유합이 진행되면서 분절운동이 소멸되거나 넣은 장치가 어긋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

내시경 목 디스크 수술도 기존 수술을 한 단계 높은 수술법이지만, 피부 절개를 최소화한다는 장점 이외에는 추간판을 관통해서 그 뒤쪽에 있는 탈출된 조각을 제거함으로써, 관통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고유의 분절기능을 보존한다

물론 퇴행성 병변이 진행되며 터져나간 추간판이라도 고유의 기능이 남아 있고, 아직 쓸모는 있다. 따라서 추간판은 제거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가능한, 그리고 최대한 남겨 본래 기능을 보존하는 것이 좋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추간판은 탈출증 발생 이후에도 계속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겠지만, 수술적 치료에서 이 고유의 자연현상을 거스르지 않고 증상을 야기한 병소 자체만 제거하여 환자 몸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결국 가장 이상적인 수술방법은 근육의 손상을 피하고, 추간판을 제거하며, 다른 방법으로 직접 병소에 접근하는 것이다. 그런 이상적인 수술방법이 최근 개발되어 수술현장에서 이용되기 시작함으로써 목 디스크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바로 ‘척추체 관통 목 디스크 수술’이다.

인접한 뼈에 작은 구멍 내서 병소 제거

‘척추체 관통 목 디스크 수술’은 우선 목의 앞쪽에서 접근해 근육과 근육 사이의 분리된 공간을 통하여 목뼈의 앞까지 도달하므로 근육 손상을 피한다.

그런 다음 병소와 바로 인접한 뼈에 조그만 구멍을 내서 병소까지 관통시키고, 그 구멍을 통해 문제 병소만 제거하고 나와 피부를 봉합하면 수술은 끝난다. 뼈의 구멍은 수술 후 3~6개월이 지나면 다시 스스로 메워지기 때문에 따로 막지 않아도 된다. 흉터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상처가 잘 보이지 않도록 기존의 목주름을 이용하여 절개하고, 성형기술로 잘 봉합하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도 상처가 심하게 남지 않으며, 수술 1개월 후부터 성형외과에서 레이저 치료를 2~3회 실시하여 표시가 거의 남지 않는다. 대부분 수술 후 2~3일째 퇴원 가능하며, 심한 운동만 피하면 바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말콤 글레드웰의 저서 <아웃라이어>에 등장하는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면 성공한 사람의 공통분모 중 하나로 '꾸준함'을 꼽는다. 무엇이든 처음과 끝이 일관되게 꾸준히 한 길을 걸어온 사람만이 성공이란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환자와 가슴으로 소통하며 오롯한 걸음으로 국내 제왕절개 수술의 1인자로 손꼽히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 김윤숙 교수의 진정한 '환자사랑' 얘기를 들어본다.

글_ 하상원 사진_ 도중환

“10년 동안 휴가
한번 안 갔어요”

한 순간의 편안함도 환자에게 양보한 김윤숙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산부인과 교수

김윤숙 교수

병원을 주제로 한 드라마를 보면 레지던트나 인턴 등의 생활은 그야말로 '병원에서 시작돼 병원으로 끝난다'는 말이 꼭 들어맞는다. 전문의 과정을 거쳐 교수로 임명된 지 10년이 훌쩍 지난 김윤숙 천안병원 산부인과 고위험임신클리닉 교수는 지금까지도 그들과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10여 년 동안 '5시 30분 출근, 7시 30분 퇴근'이라는 본인과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겨본 적이 없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반드시 병원에 들러 직접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한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며 의아해 하는 경우가 많죠. 돌이켜 보니 지난 10년 동안 휴가 한번 가지 않았네요. 가족들에겐 미안하지만 환자는 물론 태아까지 두 사람의 생명을 다루다보니 단 한 순간도 환자들에게서 눈을 돌릴 수가 없더군요. 순간의 편안함을 위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병원과의 동행'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근무하고 있는 고위험임신클리닉은 그 특성상 고위험군 산모가 환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러한 환자는 특히 촌각을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김 교수가 환자의 곁을 떠날 수 없는 이유다. 아이러니하지만 김 교수는 산부인과 병동 구성원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상사는 아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일과를 시작하고 늦게 퇴근하며, 지독하리만치 환자를 우선시하는 까닭에 소위 '알아서 굴러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교수가 국내 제왕절개 수술의 1인자로 꼽히는 이유는 다년간 쌓인 그의 실적에 기인한다. 하루 10여 명의 환자를 수술하는 김 교수는 지금까지 수천 건의 제왕절개 수술을 성공적으로 실시해 왔다. 또한 그를 찾는 고위험군 산모의 경우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제왕절개 수술이 아닌 복강경 수술 등을 병행해야 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이 대부분이다.

"예전에 2번 연속으로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두 번째 임신 중 난소에 문제가 생겨 제왕절개 수술에 앞서 복강경 수술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또 방광혈종이 발생하거나 봉축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 등 고위험 산모에 대한 수술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그렇게 쌓인 경험에 힘입어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 교수가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의료사고 없이 수천 명의 태아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것은 이러한 열정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교수를 찾는 환자는 집중치료실(중환자실)로 가야 할 정도로 위급한 경우가 일반적이다. 보통 집중치료실은 전공의가 돌아가며 당직을 맡곤 하지만 김 교수는 예외 없이 자신이 직접 환자 옆에서 밤을 새운다.

"예전에 혈액을 300봉지까지 수혈했던 환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의 혈액을 수차례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이전 상황으로 소생을 장담할 수 없었죠. 때문에 수주일을 집중치료실에서 살다시피 하며 밤을 새우는 생활을 했습니다."

체중이 거의 5~6킬로그램이 빠졌지만 환자를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행히 이후 환자의 병세가 호전돼 퇴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도 참 무식했구나'란 생각이 들곤 하지요(웃음). 지금까지 3편의 국제논문을 포함한 1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개인 시간을 쪼개 학회나 세미나 등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있다. 이렇듯 고위험 산모에 관한 공부를 지속하고 있으며 각종 연구활동을 통한 자기계발 역시 게을리 하지 않는다. 올해의 교수상을 받은 김 교수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꾼다. 오늘도 병원에서 밤을 지새우는 김 교수는 10년 뒤에도 밤새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환자와의 소통에 힘쓰는 그가 있기에 충청지역 고위험 산모들의 건강과 행복에는 늘 파란불이 켜져 있으리라.

Sci

안내렌즈, 망막박리 수술 환자도 안전



글_ 정진권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교수

시력교정을 위한 안내렌즈삽입술이 망막박리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도 안전하고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더라도 안내렌즈 삽입을 통해 안경과 이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근시나 난시로 인해 망막박리가 생긴 환자들은 수술 후에도 시력교정을 위해 주로 안경을 사용한다. 라식이나 라섹을 할 수도 있지만 장기간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안내렌즈삽입술 역시 장기간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아 수술을 꺼려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정진권·이성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안과 교수팀이 수술 후 6년 이상 장기관찰을 한 결과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미국·유럽 백내장굴절수술 학회지 발표

정진권 교수팀은 망막박리 수술을 받은 눈과 건강한 눈에 안내렌즈를 삽입하고 6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교정시력과 각막내피세포, 수술 중 합병증, 장기 합병증을 비롯한 안전성과 나안시력, 굴절 예측력, 굴절 유지력 등을 비교한 결과 망막박리가 있었던 눈과 건강한 눈 사이에 아무런 차이 없이 모두 좋은 결과를 보였다. 망막박리 수술을 받은

눈에서 일시적인 안압상승이 있었지만 안약치료 후 모두 1~2주 이내 정상으로 회복되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나안시력과 수술 전 의도했던 굴절력에 도달한 비율도 망막박리가 있었던 눈과 건강한 눈 사이에 아무런 차이 없이 좋은 결과를 보였으며 가장 걱정이 되었던 망막박리가 재발하거나 추가적인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6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정진권 교수는 “망막박리 수술 후에는 대부분 안경을 쓰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안내렌즈 삽입이 안전함을 알 수 있었다”며 “안경이 불편하다면 언제라도 안내렌즈 삽입을 고려해도 좋겠다. 다만 근시의 경우 망막박리의 가능성이 높고 기존의 망막박리가 재발하는 경우 신속한 처치가 중요하므로 수술 전 철저한 검사와 수술 후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하며 경험이 축적된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정진권 교수의 〈망막박리 수술 후 홍채고저 유수정체 안내렌즈삽입술의 장기 임상 성적〉 논문은 미국, 유럽 백내장굴절수술 학회지 2013년 10월호에 게재되어 관심을 모았다. 망막박리는 눈 속의 신경막(망막)이 눈에서 떨어지는 질환으로 근시 환자에서 발생률이 높은 안과 질환이다. 

결혼 후 여러 이유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다. 물론 특별한 성격차이 같은 문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신랑에게 질병이 있어 이혼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아쉽다. 대부분은 교정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랑 웨딩 검진이 붐을 일으키고 있다.

신랑 웨딩 검진이란 예비신랑에게 꼭 필요한 검사로, 질병을 예방하고 임신 및 출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병 등의 질병, 불임, 성기능 저하 증상 등에 대한 검사를 한다. 따라서 결혼 후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미리 점검, 치료하는 계기가 된다.

신랑 웨딩 검진은 성병 검진, 불임 검사, 전립선 검사, 성기능 상담으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불임은 1년간 정상적으로 성생활을 하였는데도 임신이 유발되지 않을 때를 말하며, 현재 불임을 걱정하는 부부가 15%에 이르고 있는데, 불임 원인은 남성, 여성, 남녀 모두가 원인인 경우가 각각 33%를 차지한다.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 각종 환경 호르몬 노출 등으로 점점 젊은 남성의 정자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 '남성 불임'이 불임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액만으로 비교적 손쉽게 하는

불임검사는 정자의 개수와 활동성, 기형 또는 염증 여부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이상 여부를 파악한다.

둘째, 성병균은 치료받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혼전 성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병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다. 별다른 증상 없이 보균 상태로만 지속되다 치료시기를 놓쳐 요도염을 넘어 전립선염, 부고환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배우자에게 전염돼 질염이나 자궁, 난소에 염증을 유발하고 불임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독과 에이즈는 더욱 치명적인 만큼 기본적인 소변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

셋째, 젊은 남성 20~30%가 전립선염을 앓고 있다. 전립선액은 정액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만성적인 전립선염은 성기능에도 지장을 주는 등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 드물지만 세균성 전립선염의 경우 부부관계 시 배우자에게 염증을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검사는 중요하다.

넷째, 부부 간의 '속궁합'도 부부관계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발기부전 등을 성기능 검사로 확인하고 조루 등에 대해 상담을 하여 현재 자신의 성기능에 대하여 확인한다.

불임환자 진료를 하면서 성병 등에 노출되거나 또는 치료 가능한 질병임에도 치료를 못하고 이혼하는 부부들을 보면서 아쉬움을 많이 느낀다. 결혼 전에 문제를 해결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돕기 위해서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에서는 신랑 웨딩 검진을 운영 중이다. 건강한 1등 신랑감이 되려면 결혼 전 신랑 웨딩 검진은 필수, 검진으로 빠른 치료를 받고 불안함도 잊으며 기 펴고 살자. 

행복한 결혼생활은 신랑웨딩검진이 필수



글_ 윤종현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비뇨기과 교수



당뇨병 예방에 걷기가 최고



글_ 목지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걸어라, 그래서 행복하라, 그리고 건강하라.”

영국의 문호 찰스 디킨스가 걷기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우리는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잘 걷지 않는다. 하지만 걷기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하는 운동이 아니다. 집안일과 일을 병행해야 하는 여성, 운동할 시간이 없는 사람 등이 복장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이다. 특히 당뇨병과 걷기 운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걷기 운동이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인체의 모든 신진대사 활동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주며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기능을 호전시켜 당뇨병 환자의 건강을 되찾아주기 때문이다.

걷기는 또한 당뇨병을 예방한다. 하루 30분을 활기차게 걸으면 운동에 의해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연구 팀이 뛰기, 자전거 타기, 걷기를 각각 1회 30분, 주 3회씩 20주간 실시한 뒤 체지방 감소율을 조사한 결과 걷기 운동은 13.4%의 체지방을 감소시킨 반면 뛰기는 6%, 자전거 타기는 5.7%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걷기가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된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운동임을 보여주는 연구라 하겠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알맞은 걷기 운동의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매일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근시간을 활용

하여 걷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 오르기 등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다.

둘째, 걷기의 시기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비만 환자가 식사요법만 하는 경우라면 식전과 식후 어느 때 해도 좋다. 하지만 경구혈당 강하제나 인슐린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라면 식후에 걷는 것이 저혈당 예방을 위해 좋다. 당뇨 합병증이 심하거나 간장이 나쁜 경우 또는 동맥경화증이 심한 때는 식후에 하는 심한 운동은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될 수 있다. 각자의 건강 상태와 취미에 따라 하되, 정적인 운동과 동적인 운동을 매일 생활화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걷기 운동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운동으로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었다고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운동량에 비해 소모되는 칼로리의 양은 의외로 적다. 또한 혈당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등산, 수영 등 격렬한 운동을 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벼운 산책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지나칠 정도로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혈당 강하제를 사용하는 환자에서는 저혈당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발의 크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운동화는 발이 편하고 잘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발가락이 생길 우려가 많고 발 상처가 나면 잘 낫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걷기 운동의 장점

1. 혈당을 내려주며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2.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혈압을 조절해 준다.
3. 고지혈증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
4. 비만을 예방해 준다.
5. 호르몬의 기능을 활성화시킨다.
6. 심장기능을 향상시킨다.
7.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안타깝게도 폐암은 대부분 완치가 어려운 단계에서 발견된다. 전체 폐암 환자 중 20% 정도만이 초기에 발견된 경우이며, 대부분 진단받을 당시 이미 3기 이상의 진행성 폐암이다. 조기발견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다.

지금까지 알려진 폐암 증상 중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이고, 그 밖에 가래, 객혈, 호흡곤란, 흉통, 선 목소리 등도 폐암 증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폐암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암도 마찬가지지만 폐암은 아주 초기에 발견해야 한다. 병기에 따라 치료 예후가 큰 차이를 보이며, 수술이 가능한 1기와 2기 사이에서도 수술 후 완치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폐암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단뿐만 아니라 병기 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와 진행 정도를 파악해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폐암은 주변의 림프절로 전이해 몸 전체로 확산되는데, 뼈, 뇌, 간, 부신 등의 장기로 잘 전이된다. 즉 원격 전이 외에도 폐 주변 종격동(양측 폐를 분리하고 있는 조직과 기관들) 림프절의 침범 여부에 따라 병기가 결정되고, 수술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종격동 림프절 전이 여부 확인은 폐암 치료에서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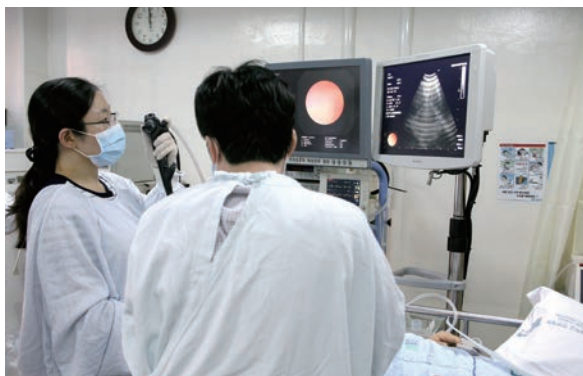
가장 효율적인 1차 검사 방법

종격동 림프절 전이 여부는 흉부 CT나 PET-CT 등으로도 확인하기 어려워 지금까지는 종격동경 검사를 시행했다. 그런데 종격동경 검사는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목 아래쪽 피부 일부를 절개하기 때문에 흉터가 남는 단점이 있다. 최근 들어 종격동경 검사의 그런 단점을 해결한 검사법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바로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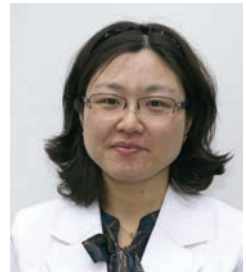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은 폐암의 진단을 비롯해 종격동 림프절 병기 결정에 정확도가 높고, 안전하기까지 해 가장 효율적인 검사로 인정받고 있으며, 차츰 종격동경 검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은 일반 기관지내시경과 유사해 국소마취 및 진정상태에서 시행한다. 내시경 끝에 부착된 초음파로 기관지 및 기관지 바깥쪽, 특히 림프절을 관찰할 수 있으며, 초음파로 직접 보면서 조직 검사까지도 가능하다.

최근의 한 연구에서 종격동 림프절에 대한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초음파 기관지내시경이 폐암의 종격동 림프절 병기 결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1차 검사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검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향후 폐암 환자들의 병기 판정에 있어 좀 더 나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초음파 기관지내시경’ 폐암 치료에 가장 효율적



글_ 류지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너무나 많은 공을 들인 것 같다. 아름다운 것을 구별할 줄 알게 눈을 만들었고, 즐거운 음악을 듣고 감동할 수 있는 귀를 만들었으며, 은은한 난초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코를 만들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감명을 줄 수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입 또한 정성들여 만들었다. 하나하나 관찰하여 보면 감탄하지 않을 부분이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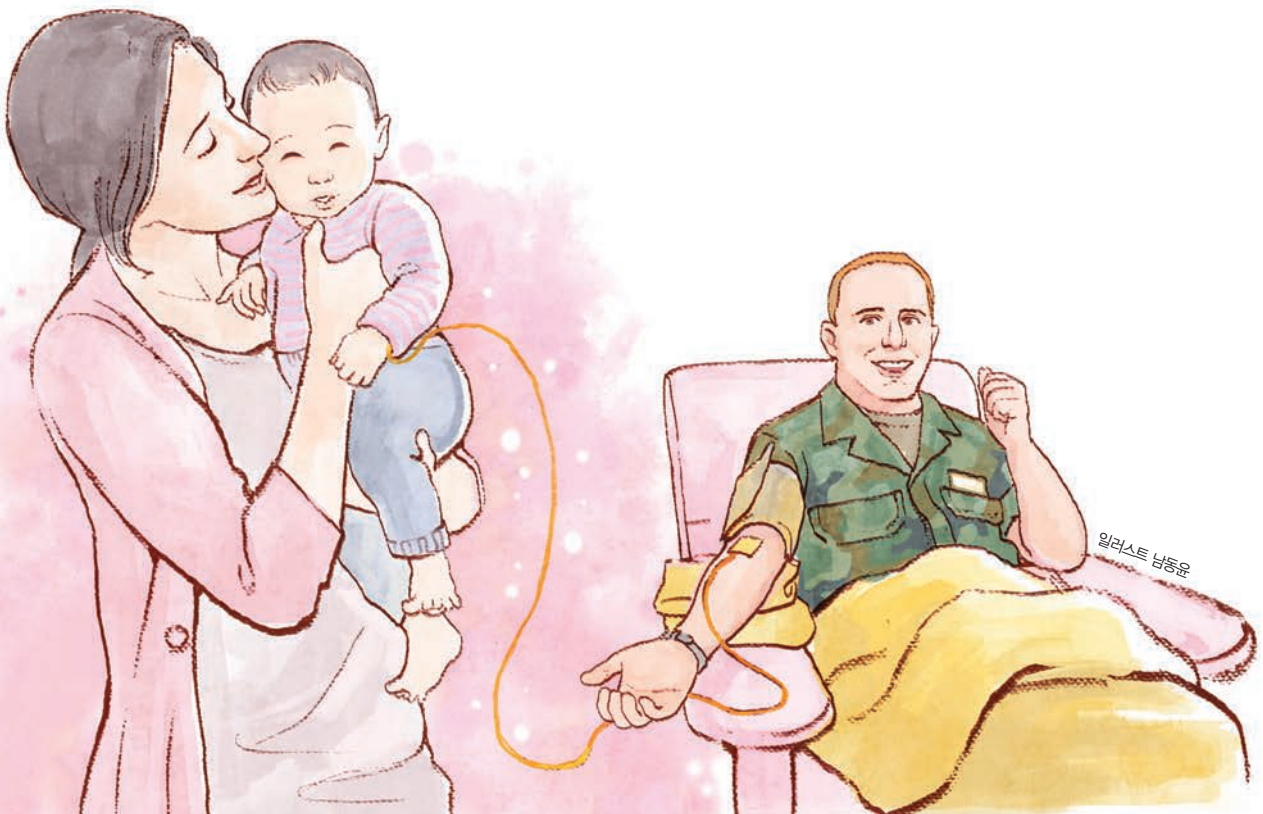
그러나 조물주는 미처 몰랐을 것이다. 인간이 이 같은 창조의 신비를 하나씩 벗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어느 부분

이라도 남의 것을 이식시켜 주어진 생명을 연장시키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란 사실을. 1975년 순천향대병원에 근무할 때 산부인과 조 과장이 찾아왔다. “이 과장 교환수혈 해봤어요?”, “대학병원에서 많이 시술해 봤는데요”, “아주 드문 산모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일일 거요.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12번이나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고, 이번엔 13번째 임신인데 Rh 음성 산모라 아주 어렵겠어요. 임신부를 보낼 테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지요.”

옥동자와 미군 장교



글_ 이병훈 대한의사협회 고문



산모를 만나보았다. “저는요, 이 세상에 아이만 살게 해준다면 원이 없어요. 시어머니 뵈기도 정말로 어렵고, 주위 사람들이 항상 저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한 희망과 함께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32세의 임신부이었다.

“Rh 부적합증”이라고 하는데요, 산모는 Rh 음성 형이며 태아는 Rh 양성 형이라 서로 피가 맞지 않아 태아 적혈구가 파괴되어 빈혈과 황달이 심해져 ‘핵황달’이 되었는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즉시 아기의 피를 모두 바꾸어넣는 교환수혈을 할 것”이라고 자세히 시술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1차 교환수혈 후 아기는 생후 3일 만에 불행하게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긴급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Rh 음성 혈액형의 헌혈자를 찾기 위해 필자는 국내 각 TV 방송국과 미군 TV 방송국에 급히 방송을 요청했다. 이런 긴급한 사실이 전파를 타고 전해지자 얼마 되지 않아 두 명의 미국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병원으로 달려가겠으니 대기하고 있으라는 것이었다. 한 사람은 병원 근처에 사는 미군 사병이었고, 또 한 사람은 동두천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온 미군 장교였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병원에 도착하여 서로 먼저 헌혈을 하겠다면서 팔을 걷었다.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장교가 사병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장교이며 또 이 갓난애와 같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를 기르고 있소. 내가 먼저 피를 뽑고, 피가 더 필요하다면 그 다음 당신이 뽑으시오.”

그래서 결국 미군 장교가 헌혈을 하게 되었고, 아기는 두 번째의 교환수혈을 신속히 받아 생명을 구하게 되었으며, 건강하게 잘 자랐다. 순천향대병원에서 기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여 이름을 ‘순천’이라고 지었다고 한다.

아기가 제법 커서 5살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 건강진단을 받으러 왔다. 아기 엄마는 아주 기분이 좋아서 순천이가 태어나기 전 이야기를 하였다.

“저는요 아기를 업고 가는 여자를 보기만 하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길을 가다가 멍하니 서서 아이를 쳐다보곤 했고, 초등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면 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이 다 나올 때까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났을 잃고 쳐다보곤 했습니다. 아마도 누가 봤으면 완전히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젠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그 후 이 아기의 어머니는 국내의 Rh 음성 혈액자 단체에 가입하여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가하고 있으며, 필

요한 때는 서로 헌혈을 하며 돕고 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Rh 음성 형인 사람들의 인구 분포는 백인이 15%, 흑인 5%이며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아주 드물어서 0.3% 정도라 간혹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아직도 자신의 혈액형이 무슨 형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Rh 음성이 아닌지 확인해 보고 이런 단체에 등록하여 위급한 사람을 위해 사랑의 헌혈을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심정이다.

지난 10월 말에 전화가 왔다. “저 이순천인데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 그래. 잘 있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한번 만나고 싶네요.”

“네. 강남에서 근무해요.”

“그럼 월요일 점심이나 같이 하지요. 당신 결혼식 주례를 한 후 서로 연락이 없었네요. 그런데 얼마 전 당신 태어날 때 긴급수혈을 해준 미군 드로즈 중위가 일부러 순천향대병원을 찾아와서 당신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을 하였으나 전화 통화를 못했지요. 당신한테 긴급수혈을 해주려고 동두천에서 일부러 급히 헬기를 타고 온 고마운 분인데, 지금 몇 살인가요?”

“저는 39살이 되었어요.”

“세월 참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어머니는요?”

“잘 지내고 계세요. 요즘 건물 청소 관리를 하고 계세요.”

“그래, 나도 당신 어머니한테 안부 전화를 드려야겠네요.”

순천이는 중·고등학교 때 운동선수로 활약을 하였으며 태권도 3단, 유도도 고단자로서 전국대회에서 은상, 동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금융업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효성그룹 산하 사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부인과 함께 두 자녀가 있다고 한다.

미국 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미군 미담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미국 사람이 제시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뒷면에는 “내가 사망하면 나의 신체 모두를 기꺼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원하여 바치겠다”라는 개인 서약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일등 국민에 대하여 존경을 품게 되었다.

자연과학이 계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게 되었으며, 우리도 이제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며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는 국민이 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의 헌혈, 사랑의 장기기증 등으로 인하여 생존하기 어려운 환자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며 헌신적인 사랑과 봉사활동은 인류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순박한 시골의사 오 원장은 ‘만능 해결사’

오주환, 오정형외과 원장...
충북 영동서 후배 두 명과 함께 추억 일궂



순천향의대 2회 졸업생인 오주환 원장이
충북 영동군에서 정형외과를 개원한 것은
지난 1994년이다. 어느새 20여 년의 시간
을 영동주민들과 함께 동고동락해 온 것이
다. 수수한 옷차림과 푸근한 미소, 넉넉한
말투의 ‘시골의사’ 오 원장의 영동 정착기
가 궁금하다.

글_ 하상원 사진_ 도종환

‘영동주민’ 오주환입니다

‘영동의 큰아들’로 통하는 오주환 원장은 음성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정형외과 과장까
지 역임한 이력을 갖고 있다. 직원이 뽑은 최고부지런한 의사로 선정됐던 그가 연고도
없는 영동에 뿌리를 내리게 된 이유는 군의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전방 특공부
대에서 근무한 오 원장은 그저 의료업무만 담당하는 일반적인 군의관과는 달리 일반병
사와 똑같은 훈련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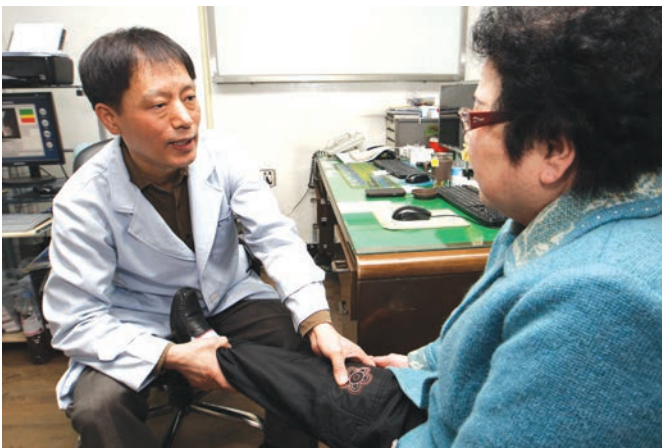
“천리행군부터 기구 점프, 호한기·특공무술 훈련까지 모든 훈련에 빠짐없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부대 지휘관도 굳이 그럴 필요 없다며 말렸지만 군의관이란 직책에 앞서 병사들과 함께 호흡하는 ‘동료’로 기억되고 싶었기에 그들과 같은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렇듯 오 원장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아이콘’이다. 20년의 세월을 영동주민들과 살아오며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들과 함께 호흡해 왔던 것이다. 지금은 어엿한 영동주민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오 원장의 ‘영동 정착기’는 그리 순탄치 않았다. 개업한 첫날부터 맹장수술을 하는가 하면 한밤중에 산모가 찾아와 태아를 받기도 했다.

병원이 아닌 경찰서에서의 활동 또한 활발했다. 전문 검사관이 없는 지역 특성상 변사체나 기타 부검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하면 오 원장에게 협조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가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순천향 정신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던 것이죠. 열심히 활동한 덕분에 많은 명함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의료기관 대표이자 경찰서 검사관, 법원 조정위원, 검·경찰위원회 등 이제는 영동에서 꼭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영동에 퍼진 ‘순천향 정신’



오 원장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아이콘’이다. 20년의 세월을 영동주민들과 살아오며 때로는 아들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들과 함께 호흡해 왔던 것이다.

영동에서는 ‘순천향 없는 생활은 상상도 할 수 없다’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오 원장을 비롯해 영동 다문화센터 회장으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정준(3회)원장과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상담의도 자리잡은 조민석(18회)원장 등이 병원을 개원했기 때문이다. 과거 학창시절의 추억이 그대로 영동에서 재현된 것이다.

“주변에 동문들이 있다는 사실은 늘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추억을 함께 공유하는 이의 존재는 항상 소중하게 마련이죠. 정준과 조민석 모두 제게는 매우 소중한 인연입니다.

오 원장은 담담히 기억의 서랍 속에 간직했던 추억을 꺼내보였다. 그가 재학 중에는 달랑 건물이 2채가 전부였고

주변은 온통 논과 밭. 황량한 시골 풍경이었죠 하숙집 밖의 개구리 소리에 잠을 설치 때가 많았지만 친구와의 우정은 좀더 돈독했죠. 게다가 입학생 중 여학생이 전무한 까닭에 ‘캠퍼스 로맨스’는 꿈조차 꿀 수 없었다.

“지금 후배들은 정말 축복받은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웃음). 저희 때는 ‘대학 로망’을 누릴만 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고생한 기억이 오래간다’는 말 마따나 동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당시의 추억이 여전히 진하게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 원장의 병원에는 하루 평균 70~80여 명의 환자들이 찾아온다. 사실 물리적으로 모든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오 원장은 그 모든 환자들을 일일이 진료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린다. 그의 머릿속에 이미 환자들의 차트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20년 동안 영동을 위해 살아온 오 원장의 미래 역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것이란 오 원장의 약속이 성큼 다가온 하루였다. 

순천향의대 동창회 소식

2014년 정기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

순천향대학교 의대동창회는 지난 2월 22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동은대 강당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 및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했다. 김범태 동창회장을 비롯해 송후빈 1회 동문 등 43명이 참석했다. 자랑스러운 순천향인상은 송후빈(1회) 충청남도의회 회장에 수여했다. 학술상은 기초의학 분야 민영기 동문(2회 생리학교실 교수), 임상의학 분야는 김영석 동문(7회 부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에게 돌아갔다.

공로상은 황경호 전 부천병원장과 박인준 동문(5회)에게 수여되었고, 서우성 서울병원장과 이성호(3회), 유상호(9회), 이영홍(5회), 박진규(5회), 최일석(6회) 동문에게는 감사패를 수여했다.

제2부 신입회원 환영식에서는 유규완 동문을 비롯한 93명에게 펜라이트를 선물로 증정하고 환영의 인사를 나눴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제31회 졸업 사은회

제31회 졸업 사은회가 2월 4일 저녁 7시 리베라호텔 토파즈홀에서 열렸다. 31회 졸업생 97명과 재수생 2명이 2014년도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의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과 동료 의사가 된 것에 대해 축하와 격려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다.

김범태 동창회장은 사은회에 참석해 전통적으로 수여해 오던 동창회장상 몽블랑 만년필(70만 원)을 수여했다. 한편, 순천향대의대는 2014년 의사국가고시에서 94.8%의 합격률을 보여 전체 평균 93.8%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었다.



2013년 순천향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



재단법인 순천향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이 2014년 2월 5일 오후 5시부터 천안 의과대학 대학원 제1강의실에서 열렸다. 조명구 순천향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김범태 의과대학 동창회장, 백병준 동창회 장학이사, 이성수 남해선 장학회 이사 등이 참석해 장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축하와 격려를 보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는 총 4,250만 원의 장학금을 27명에게 전달했다.

동창회장 신년사

사랑하는 순천향의대 3,000여 동문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는지요? 정부의 의료규제 정책 등 어려운 난관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계신 동문 여러분께 깊은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올해로 31회 졸업생을 배출한 모교는 동문회원 수가 3,000명을 넘어 이제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제10대 동창회도 출범한 지 벌써 1년이 지나면서 그간 회원들의 협조와 임원들의 노력으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회장으로 각 지역 동문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순방을 지속해 왔고 비전정책위원회를 통한 우리 동창회의 뿌리를 세우고 미션을 만들어 후배들에게 꿈을 심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동문화합대회에서는 160여 명이라는 개교 이래 가장 많은 동문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교의 발전과 동창들 간에 친목을 다지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순천향장학회를 통해 얻은 이자소득 약 4,000만 원으로 20여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장학회 재정과 회무 또한 견고히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의대학생회 참석 및 각종 의과대학 학생 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올해 동창회 역점사업으로 지방의 동문들을 방문하여 힘을 실어드리려고 합니다. 장학재단이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장학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동창회 재정은 발전기금을 확충하여 더욱 견고하게 만들겠습니다. 올 가을에는 동문화합대회 준비위 구성과 졸업 20주년 기념사업 등을 통해 동문의 단결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항상 각자의 마음속에 현재 나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위치와 행복 속에 '순천향'이라는 모교가 자리 잡고 있음을 잊지 말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 한 해도 건승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2014년 2월

순천향의과대학 제10대 동창회 회장 김범태

글_ 편집부

봄철 '피로회복제', 비타민C의 '여왕' 딸기, 새콤달콤한 맛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는 과일이다. 요즘 딸기 효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딸기에는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피부미용에 효능이 있는 비타민C가 100g 당 71mg으로, 비타민C가 많이 든 과일로 손꼽히는 귤보다 1.6배(44mg), 키위보다 2.6배(27mg)나 많고 사과의 10배나 함유돼 있다. 비타민C는 피로회복, 감기예방,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데,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신진대사를 활발히 할 뿐 아니라 멜라닌을 억제하고 기미를 막아준다. 특히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도 많이 들어 있어 몸속 활성산소로부터 혈관을 보호하고 혈전 생성도를 억제하기도 한다. 또한, 눈의 망막 세포 재합성을 촉진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각기능 개선과 피로회복, 감기예방,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데,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 꼭 음식으로 섭취해야 한다.

안토시아닌은 또 눈의 망막세포 재합성을 촉진해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각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색이 빨간 딸기일수록 안토시아닌이 많이 들어 있다. 게다가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도 풍부해 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대장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딸기를 먹고 난 뒤 입 안이 상쾌한 이유는 '자일리톨' 성분 때문이다. 자일리톨은 잇몸을 튼튼하게 해서 치주염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있다.

딸기의 이런 영양성분을 고스란히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거나 믹서에 갈아 먹지 말고 가급적 생으로, 식후에 먹는 것이 좋다. 딸기 속 비타민C는 열 등에 쉽게 파괴되는 반면 생것을 식후에 섭취하면 소화흡수율이 높아진다. 딸기를 생으로 먹을 때 우유를 곁들이는 것도 좋다. 딸기에 함유된 비타민C는 우유 속 철분 흡수를, 구연산은 우유 속 칼슘 흡수를 도와준다. 그러나 딸기를 설탕에 찍어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딸기 속 비타민B1이 설탕을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모돼 버린다.

딸기가 여성의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에릭림 박사팀은 25세~42세의 여성 9만 3,6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딸기나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심장질환에 걸릴 확률이 3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엽산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임신부에게도 딸기는 좋다.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면 태아에게 뇌 이상, 기형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농촌진흥청의 자료에 따르면 딸기 100g에는 약 127g의 엽산이 함유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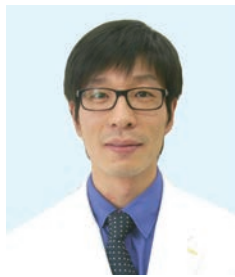
대한영양사협회에 따르면 딸기는 1회에 10개씩, 하루에 2번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딸기를 1분간 물에 담근 후 흐르는 물에 30초간 씻으면 농약이 말끔히 없어진다. 그러나 그 이상 씻으면 비타민C가 물에 녹아 빠져나가므로 주의해야 한다. 



봄철 '피로회복' 여왕, 딸기
하루에 몇 개씩 먹어야 할까?



소아와 청소년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



글_ 이종현 구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자료제공_ 영양실 영양사 배태정

외모에 대한 시대적 흐름과 함께 자녀 성장에 대한 부모님들의 관심과 노력은 가히 놀랄 만하다. 진료실에서는 어린 소아에서 체중이 잘 늘지 않는다는 문의와 함께 점차 청소년이 되어가면서는 키 성장 역시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지는 부모의 상담이 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우리 아이는 잘 먹는데도 크지 않아요.”, “우리 아이는 잘 먹지 않고 입이 짧은 편이에요.” 같은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럼 과연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영양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성인과 다르게 성장기에 있는 소아와 청소년들은 충분한 열량을 섭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소아와 청소년의 일일 권장 섭취 열량은 [섭취 열량(kcal/일) = 1000 + (만 연령 × 100)]으로 계산할 수 있다(한국인 영양섭취기준 - 2010년). 우선 아이들이 하루 섭취 열량이 권장 섭취 열량에 도달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3대 영양소 골고루 섭취해야

특히 성장장애를 보이는 소아들에게서는 좀 더 충분한 열량 섭취가 필요하며, 열량밀도가 높은 영양보충 음료를 섭취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충분한 열량을 공급하려면 권장 섭취 열량에 따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3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 케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탄수화물은 곡류와 과일에 많이 있으며 전체 섭취 열량의 55~60%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좋다.

‘성장기 영양간식’ “딸기 샤베트 & 딸기 샌드위치”

3월 제철 과일인 ‘딸기’는 비타민C, B1, 엽산,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한 과일이다. 특히, 비타민 C 함유량이 100g당 80mg으로 사과의 10배, 레몬의 2배, 귤의 1.5배로 풍부해 딸기 6~7개면 하루 비타민C 섭취량을 모두 채울 수 있을 정도다. 새콤달콤 빨간 딸기는 비타민C가 풍부해 멜라닌 색소의 활성화를 막아주어 피부미용에 도움이 되고, 펙틴 성분이 함유되어 변비 예방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또한 메탈살리실산은 진통작용이 있어 약제로도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딸기는 한 개 당 약 5kcal로 칼로리가 낮고 건강에 좋은 비타민이 풍부하여 다이어트에도 좋다.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며, 자일리톨 성분이 함유되어 치주염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엽산 성분도 풍부해 임산부에게도 좋다. 특히 철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들의 뼈 건강에도 좋다. 이런 딸기는 우유, 치즈, 생크림 등 유제품과 함께 섭취하면 좋고, 그중에서도 우유와 궁합이 가장 좋다. 딸기와 우유가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며 딸기의 시트르산이 우유의 칼슘 흡수를 돕고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도와준다.

제철 보약인 딸기로 성장기 아동을 위한 영양만점 간식을 두 가지 소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적극 활용해 보자.



■ 딸기 샌드위치

- 재료 : 식빵 2쪽, 딸기 8~10개, 딸기잼 10g, 치즈 2장
- 만드는 방법 : ① 식빵을 밑대로 밀어준다(최대한 얇게).
② 얇게 민 식빵의 테두리를 깔끔하게 잘라준다.
③ 식빵 위에 딸기잼을 펴 발라준다(치즈크림 or 생크림으로 대체해도 됨).
④ ③ 위에 슬라이스 치즈 한 장을 깔고, 식빵 끝부분에 딸기 4~5개 정도를 가지런히 올려놓고, 김밥 말듯이 돌돌 말아준다.
(Tip. 딸기 앞, 꼬리 부분은 잘라주면 예쁜 모양이 됨)
⑤ ④ 돌돌 말아준 식빵을 랩 or 호일로 말아 냉장고에 넣어둔다.
⑥ 일정한 크기로 잘라서 마무리한다.

■ 딸기 샤베트

- 재료 : 딸기 100g, 연유 3T
- 만드는 방법 : ① 믹서기에 준비한 딸기를 넣는다.
② 준비한 연유 3T를 같이 넣어 돌려주면 완성된다.

단백질은 성장에 중요한 영양소로 어류, 육류와 유제품, 식물성 단백질인 콩 종류에 풍부하고, 15~20% 정도가 좋다. 지방은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원으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며, 25~30% 정도가 적당하다. 그 외에 비타민이나 칼슘과 같은 무기질 또한 성장에 도움이 되며, 주로 야채와 과일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제철과일을 이용한다면 아이는 손쉽게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다.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 충분한 숙면, 꾸준한 운동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에 중심이 되는 올바른 영양 관리는 성장을 하기에 충분한 열량의 공급과 열량의 맞는 적절한 영양소의 공급이다. 



소설가 김유정의 가여운 사랑

김유정 & 박죽주

글_홍지화(소설가)

불운의 빛, 소설가 김유정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 푸드득 하고 닭의 헛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다르랴 두 놈이 또 일리었다. 점순네 수탉(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박하게 생긴 놈)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씹을 붙여왔을 것이다. 바작바작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소설 〈동백꽃〉과 〈봄봄〉의 작가 김유정(金裕貞: 1908. 1. 11~1937. 3. 29)의 작품 일부이다. 어수룩한 소년인 '나'와 시냇말로 '발랑 까진' 동갑내기 지주 딸 '점순'의 기싸움이 지루하지 않게 전개되는 작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1930년대 대표 리얼리즘 작가답게 명랑하고도 리얼하게 식민치하의 피폐한 농촌 현실을 고발한 천재 작가 김유정. 하지만 대부분의 예술가가 병마와 가난과 사투를 벌였듯 그 또한 병마와 가난의 그림자를 비켜가지 못했다. 아니, 오히려 29년의 짧은 생을 사는 동안 그는 가난과 병마, 외로움, 실연의 고통 등 인간사 모든 불행을 어깨 위에 짊어져야 했던 불운의 사내였다.

천석꾼의 아들로 태어나 가난한 말더듬이 먹서리가 된 반전인생

작가 김유정은 오늘날의 남춘천에서 2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대대로 천석꾼의 지주 집안이었고 서울에도 백 칸짜리 집이 있어 서울과 본가를 오가며 살림을 할 만큼 부유했다. 친가는 물론 외가까지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명문 세도가였다. 장남을 낳은 후에 내리 여섯을 딸만 낳은 터라 귀염둥이 막둥이 아들이었던 유정은, 외가는 물론 이웃 사람들의 사랑까지 독차지했다.

어린 시절 그는 '먹서리'라는 아명으로 불렸는데, 그의 부모가 막내아들을 얻은 기쁨에, 재산을 모으고 오래오래 살라는 의미로 붙여줬다. 그러나 이름이 너무 좋아서일까? 살아 있는 동안 부를 누리보지도, 불혹을 넘겨보지도 못했으니 '먹서리'란 그의 아명이 오히려 반어적인 의미로 들린다.

그의 유년시절의 평화와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나이인 일곱 살에 모친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설상가상으로 아홉 살 때에는 부친마저 그 뒤를 이었다. 돈을 물 쓰듯 쓰는 방탕한 장남 탓에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다. 여섯이나 되던 누이들도 모두 일찍 시집을 가 출가외인이 됐고, 남부러울 것 없이 사랑만 받았던 부잣집 막내 도련님은 이제 떠돌이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눈칫밥을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그토록 불우한 성장기를 거쳤기에 식민치하의 수탈당하는 농촌 소작농들의 현실을 토속적이면서 해학적

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흔히들 김유정의 문학을 ‘들병이 문학’이라고도 한다. ‘들병이’란 소위 집시, 시골 주막을 돌아다니며 술을 팔고 매춘을 하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말한다. 김유정의 작품에서는 들병이의 남편이 아내를 매음시켜 생계를 꾸리는 것도 부족해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김유정 자신도 젓먹이가 딸린 들병이 여자에게 구애를 하기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성장기에 방임된 채 자란 그는, 갈수록 혼자만의 세계로 빠져 그 후유증으로 한때 말더듬이 증상을 보였다.

여성에 대한 집착, 그리고 마음을 빼앗아간 한 여인

김유정은 살아 있는 동안 강전하고 인자했던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으로 꽉 차 있었으며, 이것은 곧 어머니를 닮은 연상녀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

연희전문학교 문과에 재학 중이던 그는,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서 목욕탕에서 나오는 한 여인의 청초한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녀의 화장기 없이 창백한 얼굴과 반듯한 윤곽이 꿈에 그리던 어머니를 보는 것 같아 심장이 쿵탕쿵탕 뛰었다. 그녀는 바로 두 살 연상의 판소리 명창 박녹주(朴綠珠: 1906~1979)였다. 당대 최고의 명창 중 한 사람으로 손꼽혔던 박녹주는 당시에도 콜롬비아 레코드사와 전속 계약을 할 만큼 명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즉 가난뱅이 작가 지망생이 감히 언감생심 들이댈 상대가 아니었다. 김유정은 당시만 해도 그녀가 누구인지 몰랐다. 큐피트의 화살이 심장에 꽂힌 그는 그 시간 이후부터 가슴앓이를 했다. 밤이면 밤마다 박녹주에게 연애편지를 써 마음을 전했다.



〈저는 연희전문에 다니는 김유정이라 합니다. 당신을 연모합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편지를 쓰는 걸 용서해 주옵소서. 제 연모의 정을 부디 받아주옵소서.〉

당시 편지를 읽은 박녹주는 당황했다. 학생 신분에 기생한테 연애편지를? 고심 끝에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해 돌려보냈다. 며칠 후 그는 그녀의 사진을 레코드판에서 오려 붙여 다시 편지를 보냈다. 한두 번 거절에 포기할 김유정이 아니었다. 편지 보내기는 그렇게 얼마간 지속되었고, 어느 날엔가는 그녀의 집 마당에 앉아서 목 놓아 통곡까지 했다. 그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그녀의 아우까지 친구로 만들어 그녀의 집에 매일같이 드나들었지만 모두 허사였다. 제 맘대로 되지 않자, 나중에는 혈서로, ‘녹주, 내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쓴 편지를 매일같이 보냈다. 그러나 박녹주는 스토커처럼 질긴 그의 애정공세에 흔들리지 않았다. 김유정보다 두 살이나 연상인데다가 기생이었던 박녹주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훗날 회상하였다.

는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훗날 회상하였다.

〈난 기생이요. 학생이 기생과 무슨 연애질을 하자는 말이요? 학생이 이러면 나도 가슴이 아프요. 공부를 끝내면 다시 나를 찾아주소요.〉(박녹주, 〈여보, 도련님 날 데려가오〉에서)

박녹주에 대한 짝사랑은 그렇게 제풀에 지쳐 흐지부지 끝났다.

그는 실연의 상처를 안고 낙향해 농촌 계몽 운동과 작품 집필에 몰두했다. 그러던 중 결핵과 녹막염이 악화되었고, 세상을 뜨기 열하루 전인 3월 18일, 살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담긴 편지를 한 친구에게 보냈다.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병마와 최후 담판이다. 나에게는 돈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돈이 되면 우선 닭을 한 30마리 고아 먹겠다. 그리고 땅꾼을 들여, 살모사 구렁이를 십여 못 먹어보겠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돈, 돈, 슬픈 일이다.〉

이토록 살고 싶어 몸부림쳤던 한 예술가의 생명을 모진 가난의 굴레가 갇아먹은 듯해 찡하다. SCH

29년의 짧은 생을 사는 동안 그는 가난과 병마, 외로움, 실연의 고통 등 인간사 모든 불행을 어깨 위에 짊어져야 했던 불운의 사내였다.

고기요리와 한정식을 함께 즐기고 싶다면 손수헌 SON SOO HEON

글_ 손문선<구루메 빠라디> 저자
사진_ 홍인근<튜브스튜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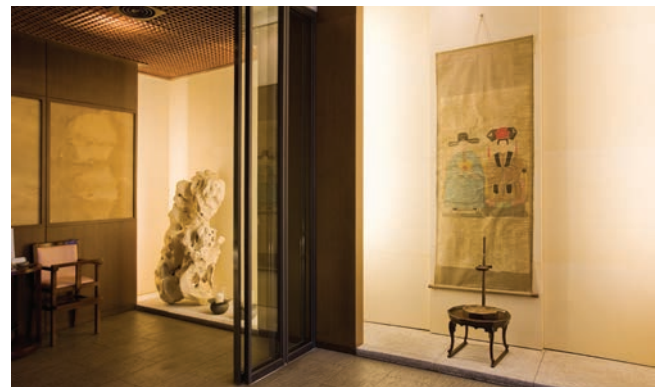
손수현은 격조 있는 서비스를 받으며 품위 있게 고기요리와 한정식 코스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보통 고깃집에 가면 분주하고 분위기가 없는데 이 집은 대부분의 공간이 넓찍하고 프라이빗한 룸 위주로 차분한 느낌을 준다.

전통 가구와 공예품, 그림 등으로 장식된 내부는 단아하면서도 꽤 고급스러운 분위기. 조용한 가운데 대화를 나누며 미각을 즐길 수 있는데다 서비스도 매우 정중하고 깎듯해서 상견례나 비즈니스 모임, 가족 모임을 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대개의 한식집이 매양 같은 메뉴라 자주 가기 어려운 것에 비해 이 집에서는 전체 메뉴를 일 년에 서너 번 정도 바꾼다. 계절마다 새로운 메뉴를 선보이고 코스 메뉴의 경우 메인을 제외한 다른 요리들은 수시로 변화를 주어 자주 가도 물리지 않고 늘 즐겁다. 저녁에는 대개 고기 위주의 코스 요리를 즐기지만 낮에는 코다리 정식, 불고기 정식 등 단품 세트메뉴로 가볍게 식사하기 좋다. 전복 갈비찜이라든가 주물럭 석쇠구이도 베스트 런치 메뉴.

이 집의 특별함은 고기요리에서 가장 돋보인다. 특정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부위별로 가장 좋은 최상급 한우를 엄선해 들여온다. 마블링이 환상적이며 조금 하나만 딱 찍어먹어도 누린내가 전혀 없고 입에서 살살 녹는다.

굽는 방식은 숯불이 아닌 가스 불을 택했다. 숯의 연기와 강한 향이 오히려 최상급 고기맛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보통의 고깃집에 흔한 후드도 안 보인다. 연기가 테이블 아래로 빠져나가게 설계되어 있는 것.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중요한 대화를 나눌 때 방해받을 염려가 없다.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해 방향제를 쓰는 곳들도 있는데 이 집에서는 음식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아침, 저녁 배기를 틀어서 환기를 자주 시킨다. 혹 고기 굽는 냄새에 아주 민감하다면 창문이 있는 방으로 예약하면 더 좋겠다. 이 집의 고기 코스 메뉴에서는 안창살, 꽃등심, 살치살, 갈비살 등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조금씩 맛볼 수 있어 좋다. 보통 두세 가지 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드시기 부드러운 꽃등심과 살치살, 외국손님은 생갈비를 선호한다고 한다. 고기맛을 즐기는 분들에게는 쫄깃한 안창살을 추천한다.

안창살은 육즙이 풍부해 바삭 웰던으로 구워야 누린 맛이 빠지고 더 쫄깃하니 맛있다. 꽃등심은 부드러워서 살짝 구워먹어도 좋겠다. 직원이 직접 고기를 구워주는데 무엇을 먼저 먹어야 하는지, 부위에 따라 어떻게 굽는지 친절한 설명을 곁들여준다. 고기를 먹고 난 다음 음식으로는 무잔지짜개를 추천한다. 동치미나 석바지 등 묵은 무김치에 된장을 넣고 파득하게 지져 나오는데 짭조름하면서도 깊고 개운한 맛이 각별하다. 마치 시골에서 어머니가 끓여주던 그 맛 그대로랄까? 다른 곳에서 맛보기 어려운 별미를 맛보려면 꼭 가보길 권한다. 



몸과 마음이 맑아진다, ‘잣향기 푸른숲 숲길’

글·사진 김진국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신장내과 교수





올해의 걷기 테마는 '숲길'로 정했다. 전국의 아름다운 숲길을 발굴해 보고 싶어서다. 첫 코스로 택한 곳은 경기도 가평 축령산 자락에 있는 '잣향기 푸른숲 숲길'이다. 축령산과 서리산 일대에 위치한 이곳은 해방 전 후로 심어진 잣나무 수십만 그루가 잘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잣나무는 아름답기도 하지만 영어로도 'Korean Pine'으로 표기될 만큼 한반도가 원산지임을 당당히 알리는 나무이기도 하다. 맑은 공기와 함께 잣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몸속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병에도 효과적이다.

푸른 잣나무 숲에서 마음을 치유하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봄. 하지만 올해 들어 최장기간 지속된 미세먼지 주의보 예고에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날들이 이어졌다. 눈과 목이 늘 불편해 맑고 푸른 숲길에 더욱 간절했다. 이는 우리뿐만이 아니었는지, 주말 봄나들이 교통 혼잡이 심각하다. 이를 감안해 우리 부부는 일찌감치 서둘러 백련사로 향했다. 잣향기 푸른숲 숲길에 오르는 다양한 길 중 비교적 한적하고 걷기 좋은 코스가 백련사 옆 임도로 오르는 길이기 때문이다. 백련사는 경기도 지정 템플스테이 사찰로, 역사는 길지 않지만 청결하게 잘 정리된 느낌이다. 숲길 입구까지 지그재그로 올라가는 임도길에는 아직 봄과 겨울이 공존하고 있었다. 황량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사이로 흰 눈이 남아 있는 한편, 어김없이 푸른 새싹들은 흙을 뚫고 나와 봄의 시작을 알린다. 30여 분을 오르니 삼거리가 나오고 이정표에 축령산 방향이 표시돼 있다. 이제 본격적인 숲길이다. 마치 장군이 갑옷을 입고 군대 사열하듯 일렬로 위풍당당 서 있는 잣나무들을 대하니 눈과 마음이 시원해진다. 나무를 쪼며 북을 치는 딱따구리의 장단에 맞춰 산비둘기는 구구구구, 산새들은 휘파람으로 합창한다. 대자연이 들려주는 오케스트라를 들으며 아름다운 숲길을 바라보니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된 듯하다. 숲길 그루터기 쉼터에 앉아 눈을 감고 명상에 잠겨본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치유하러 왔건만, 이것도 직업 병일까. 잘라진 나무 모양이 콩팥의 단면과 너무나 비슷하게 생겼다. 산길 주변에 떨어진 잣송이의 향이 코 끝을 기분 좋게 자극한다. 이른 봄, 부지런한 다람쥐들이 어디선가 나타나 지나가는 여행객들을 발견하고는 쓴살같이 도망간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잣향기 푸른숲

마음껏 치유의 숲속 공기를 마시며 걷다 보니 눈앞에 큰 건물이 나온다. 지난해 말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정식으로 개장 예정 중인 체험공간이다. 방문객들은 울창한 잣나무 숲속에서 숲 체험, 산림치유, 목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화전민 마을을 재현한 너와집, 귀틀집 등 가옥도 전시 중이어서 가족들이 함께 관람하기에 좋다.

안내도를 둘러보고 화전민 마을로 향한다. 눈 덮인 조그마한 연못 옆에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물레방아를 지나니 누군가 열심히 쌓아올린 돌탑 두 개가 보인다. 돌탑을 지나니 누런 진흙벽의 귀틀집과 나무로 지붕을 얹은 너와집이 있는 화전민 마을 입구의 싸리문이 보인다. 건너편의 너와집 지붕에는 나무판들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목직인 돌덩이들을 등성등성 얹어놓았다. 기둥에 걸려 있는 무청잎을 보니 맛있는 시래기국이 떠올라 나도 모르게 군침을 다신다.

쪽마루 한켠에 앉아 커피 한 잔의 휴식을 끝내고 치유의 숲길을 한 바퀴 돌아 다시 백련사로 향한다. 숲길을 걸으며 한결 맑아진 마음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 향긋한 잣향이 맴돈다. 

건강 TIP. 걷기는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다. 식사 후 짧은 시간만 걷기에 투자해도 당뇨병 발병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식후 15분 정도의 걷기가 음식을 섭취한 후에 혈당이 위험한 수치로 상승하는 것을 막아준다.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33만 여행자가 선정한 유럽의 테마별 베스트 여행지 100곳

글 _ 편집부

만약 프라하에서 내 운명을 바꿀 사랑을 만나게 된다면……. 만약 두브로브니크에서 한 달쯤 머물게 된다면……. 만약 산티아고 순례길 을 걸으며 지난날을 돌아볼 수 있다면…….

이 책에 소개된 '유럽에서 할 수 있는 100가지 아이템'은 여행자들의 로망을 실현할 '만약'의 가능성을 선물한다. 10개의 테마로 구성된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의 순위는 대한항공 캠페인 참여자 33만 3천 명이 직접 뽑았다.

'사랑을 부르는 유럽', '한 달쯤 살고 싶은 유럽', '시간이 멈춘 유럽', '유럽 속 숨겨진 유럽'에서는 소중한 사람과 머물 만한 곳들을, '달리고 싶은 유럽',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직접 느끼고 싶은 유럽'에서는 젊음을 걸고 용감하게 뛰어든 만한 프로그램들을, '갓고 싶은 유럽', '먹고 싶은 유럽', '그들을 만나러 가는 유럽'에서는 유럽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완성 아이템들을 보여준다.

지금 당장 떠나고 싶은 100곳

누구나 꿈꿨을 크로아티아의 해안가 산책 코스에서 누군가의 눈물겨운 러브스토리가 깃든 스페인의 성당, 인생의 끝자락에 반드시 한 달쯤 머물고 싶은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지상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동유럽의 음식 투어에 이르기까지, 상상만 해도 좋은 설렘과 이미 다녀왔으나 당장 다시 떠나고 싶은 욕망 둘 다에 불을 지핀다. “나는 카를교의 석양이 너무 슬퍼서, 그 거대한 우주의 슬픔 앞에 내 모든 슬픔이 꼬마전구처럼 작고 하찮게 반짝이는 것 같아 문득 웃음이 나왔다.” —프라하, 카를교 위를 거닐며
 똑 부러지는 문학평론뿐 아니라 감성적이고 따스한 에세이로 젊은 독자들을 사로잡은 정여울 작가는 특유의 감성과 담백한 문체로 여행의 단상을 풀어놓았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영혼의 도피처, 카프리섬', '이 모든 슬픔이 작고 하찮게 여겨지는 낭만의 거처, 카를교', '내가 어디 있는지도조차 잊게 만드는 감각의 향연, 플라멩코'와 같이 충분한 감탄이 담긴 문장들은 두어 번 유럽을 다녀온 여행자들의 마음까지도 다시금 팔랑이게 만든다.

책에는 또 다른 세상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는 여행지에서의 감상, 폐허는 '존재'보다 '부재'를 생각하게 한다는 공간에 대한 재해석, 트램과 박물관만 보아도 대비되는 우리 사회에 대한 성찰 등이 녹아 있다. 이러한 깊은 시각과 절묘한 표현력은 독자들에게 매 순간 유럽에 가 있는 것보다 더 생생한 감각을 불러 일으킨다. 봄밤의 꿈처럼 마음을 달뜨게 만들 101가지 유럽 이야기, 꿈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저자 정여울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잘 있지 말아요' 등의 따뜻한 감성을 담은 에세이와 '마음의 서재', '시네필 다이어리', '정여울의 문학 멘토링', '소통' 등 고전 및 문학 관련 인문서를 출간했다.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강의하며 [한겨레]에 '내 마음속의 도서관'을 연재하고, KBS 1라디오 '책 읽는 밤'의 '마음의 서재' 코너에 출연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교보문고 2014년 3월 첫주 베스트셀러 순위

- 1 에드워드 틀레인의 신기한 여행 | 케이트 디카밀로 · 비룡소
- 2 내가 사랑한 유럽 TOP 10 | 정여울 · 홍익출판사
- 3 디즈니 겨울 왕국 무비 스토리북 | 편집부 · 예림아이
- 4 강신주의 감정수업 | 강신주 · 민음사
- 5 FROZEN | 사라 네이션, 셀라 로만 · 룬테일북스
- 6 겨울 왕국 - 디즈니 무비 클로즈업 4 | 월트디즈니사 · 꿈꾸는달팽이
- 7 1cm+ | 김은주 · 허밍버드
- 8 디즈니 겨울 왕국 스티커북 500 | 편집부 · 예림아이
- 9 인생수업 | 법륜 · 휴
- 10 정글만리1 | 조경래 · 해냄출판사



뮤지컬 '태양왕' 국내 초연... 루이 14세 삶 · 사랑 담아

안재욱, 왕의로의 복귀

글 _ 편집부

한국 첫 라이선스 대작 뮤지컬... 화려한 볼거리로 관객 시선 사로잡는다

17세기 프랑스 절대주의 시대의 대표적 전제 군주였던 루이 14세의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 '태양왕'이 오는 4월 한국에서 초연된다.

작품은 아름다운 음악과 베르사유 궁전 등 프랑스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를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완벽하게 재현해 2006년 초연 이래 8년간 프랑스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여세를 몰아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 전역에서 400회 이상 공연되며 총 170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대작이다. 주옥같은 뮤지컬 넘버들을 모아 발매된 음반은 150만 장 이상 판매되며 뮤지컬 '태양왕'의 명성을 입증했다. 이번 한국 초연은 EMK뮤지컬컴퍼니와 마스트엔터테인먼트가 공동으로 제작해 다시 한 번 프랑스 뮤지컬 흥행돌풍을 이어간다.

두 제작사는 프랑스 뮤지컬 특유의 강하고 화려한 안무와 아크로바틱이 돋보일 수 있는 상징적인 무대를 구성하는 한편 프랑스 왕실의 아름다움을 영상과 무대로 생생하게 재현할 계획이다.

또한 절대 왕권의 권력을 상징하는 루이 14세의 의상들을 비롯해 총 300여 벌의 의상을 제작하는 등 화려한 볼거리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뮤지컬 '태양왕'은 한국 첫 라이선스 대작 뮤지컬인 만큼 배우 캐스팅에 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았다. 지난 1월 28일에는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초호화 캐스팅으로 눈길을 끌었다. 프랑스 절대 왕권의 상징인 루이 14세역은 안재욱, 신성록이 맡았다. 방황하는 루이 14세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지막 사랑 프랑소와즈 역에는 김소현, 윤공주가 더블 캐스팅됐다. 루이 14세의 이지적인 동생 필립 역에는 김승대, 정원영이 캐스팅됐다. 루이 14세의 첫사랑 마리 역은 임혜영과 정재은이 번갈아 맡는다.

안재욱 · 신성록 등 초호화 캐스팅 '흥행돌풍' 예감

지주막하출혈 수술 후 뮤지컬 '태양왕'이 첫 복귀 작인 안재욱은 "회복 후 복귀하는 첫 작품이라 더욱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고려했다"며 "'태양왕'을 준비하는 제작사의 과정에 신뢰감이 생겼고, 배역에 대한 믿음과 애정도 커져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고 캐스팅 소감을 밝혔다. 안재욱과 함께 루이 14세 역할을 맡은 배우 신성록은 올해로 뮤지컬 데뷔 10주년이다. 신성록은 "무대를 장악하는 매력적인 캐릭터 루이 14세를 꼭 연기하고 싶었다"며 "데뷔 10년 만에 주어진 다시 없을 기회인 것 같다. 철저한 캐릭터 분석과 연습을 통해 나만의 특별한 루이 14세를 연기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신성록은 SBS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어떠한 악행도 서슴지 않는 소시오패스 역할을 맡아 연기 변신에 성공하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뮤지컬 '태양왕'은 4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블루스퀘어 삼성전자홀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티켓 가격은 VIP석 13만 원, R석 11만 원, S석 8만 원, A석 6만 원이다.

문의는 ☎02-6391-6333.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순천향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현대정보기술 3개 기관 공동 의료정보화 産·學 협력 MOU 체결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의료원장 김성구), 현대정보기술(대표이사 마용득)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의료정보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양해각서(M.O.U.)를 2월 5일(수) 오후 5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신관 2층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3개 기관은 향후 △ 의료정보화를 위한 연구과제 발굴 △ 공동 연구개발 수행 △ 원격진료 모델 창출 △ 의료 관련 솔루션 개발 △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정보화 사업의 고도화 사업 등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은 지난 2011년부터 현대정보기술과 의료원 산하 4개 병원(서울·부천·천안·구미)의 의료통합 시스템 개발 및 의료정보 고도화 사업을 진행 중이다. 향후 의료 IT 산업의 국제적인 수출을 통해 세계적인 의료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제7회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 QI경진대회

순천향대학교 중양의료원은 2월 7일 오후 3시부터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의료원 QI경진대회를 개최했다. 각 병원의 QI활동을 의료원 차원에서 공유하고 적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경진대회에서는 구연 8편, 포스터 4편의 연제를 발표했다. 경진대회 결과 서울병원 수련부/감염관리 팀이 발표한 '소규모, 정기적 현장교육을 통한 감염관리 수행률 향상'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2등상인 우수상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수술실이 '확대 DRG에 따른 수술의 표준적정 진료를 위한 CP개발 및 적용'으로 상을 받았다.



순천향대학교

제4회 대학 및 보직자 한마음대회

학교법인 동은학원 산하 대학 및 부속 병원 한마음대회가 2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병원 동은대강당에서 열렸다. 한마음대회는 법인 산하기관의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소속감과 연대감을 키우고, 공동의 성장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호학과 14년간 국가시험 100% 합격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간호학과 50명의 학생들이 최근 실시한 '제54회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모두 합격해 2001년부터 14년간 100% 합격이라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학과 학과장 신수진 교수는 "국가시험 과목별 우수한 교수진의 열정적인 교육, 대학의 부속병원과 연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환경, 대학의 전폭적인 지원은 물론 학생들의 노력 등이 어우러져 거둔 성과"라고 말했다.

2013년도 학위수여식

순천향대학교(총장 서교일)는 20일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학부생 50개 학과, 2,164명의 졸업생들에게 학사학위를 대학원 석사 149명, 박사 28명에게도 각각 학위를 수여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는 그동안 사용하던 학위 가운을 새롭게 디자인했고, 이날 처음으로 졸업생들에게 착용시켜 눈길을 끌었다. 이로써 순천향대학교는 198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래 총 4만 9,000여 명을 배출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경남 사천시와 상생협력 협약

서울병원과 경남 사천시 및 재경사천시 향우회는 1월 17일 오후 4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청원홀에서 '공동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병원은 사천시민과 재경 사천향우회원의 병원 이용 시 진료 편의를 비롯한 혜택을 부여하고, 사천시의 도서벽지 등 의료 낙후 지역에 대한 의료봉사 활동과, 지역 특산물 구매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완영 국회의원 홍보대사 위촉

서울병원(서유성 병원장) 2월 12일 신관 청원홀에서 이완영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성주·고령·칠곡)을 홍보대사 겸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직업인의 행복 찾기'를 주제로 특강을 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완영 의원은 특강을 통해 "직업은 생활여건을 마

련하는 기본 조건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내가 할 일이면 더 잘하자는 마음을 갖는다면 직장에서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부초음파 및 초음파내시경 진단 워크숍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는 3월 9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병원 동은대강당과 복부초음파실, 내시경실에서 제33회 복부초음파 및 초음파내시경 진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초음파의 경험이 많지 않은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공보의, 방사선사 등을 대상으로 복부초음파 내닫기, 복부초음파 다지기, 비디오킴즈, 라이브 데몬 스트레이션, 핸드 온 코스 등 강의와 시연, 퀴즈풀이, 초음파 실습 등 다양한 내용을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최신 디지털 심혈관조영시스템 구축

서울병원 심장센터(센터장 현민수)는 최근 디지털 심혈관조영장비인 독일 지멘스(SIEMENS)사의 '아티스 지'(ARTIS ZEE)의 도입과 더불어 심혈관중재시술을 위한 최신 시스템을 구축,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새로 도입한 장비는 플랫패널을 사용하여, 기존 장비보다 적은 방사선량으로 고화질 영상을 구현한다. 또한 완전 자동화한 영상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 및 보관이 가능하다. 특히 클리어 스텐트(clear stent) 기능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의 좁아진 병변에 정확한 스텐트 삽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13년도 '최우수' 지역응급의료기관 선정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13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가 2월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병원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 장비, 인력 등 모든 분야에서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무인 자동화 접수 시스템 대기시간 단축

서울병원이 최근 진단검사의학과 외래채혈실에 무인자동화 접수 시스템을 도입해 채혈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무인자동화 접수 시스템이란 외래환자의 채혈검사 정보를 확인하는 전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채혈실 직원이 환자의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고 채혈목록을 확인한 후에 환자 식별 바코드를 출력, 튜브에 부착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상급종합병원 최초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 획득

부천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사업장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패 수여식은 12월 24일(화)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천지도원에서 개최됐다.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공동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조직해 사업장의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현장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사업장을 선정하고 있다. 심사항목은 • 작업 관련성 질환 예방 • 근골격계질환 예방 • 뇌심혈관질환 예방 • 직무스트레스 예방 • 조직 차원의 생활습관 개선 등이다. 부천병원은 전 교직원원을 대상으로 • 스트레스 관리(S) • 근골격계질환 관리(M) • 감염예방(I) • 저염식이요법(L) • 예코캠페인(E)을 주요 내용으로 한 'SMILE 건강증진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3년도 시무식에서 부천병원 경영목표 발표

1월 2일(목) 부천병원 2014년도 시무식 및 1월 정기조회가 향설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문성 병원장은 2014년도 경영목표로 • 의료수익 향상(총 수입 10% 성장) • 진료역량 강화(A급 중증도 25% 달성) • 고객만족도 향상(외래 50%, 입원 55%, 내부고객 45% 목표) • 창조적 조직문화 정착 • 2주기 인증조사 통과(인증항목 536개 중 90% 이상 '상' 획득 목표) 등 총 5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이문성 병원장은 교직원 상호간 소통과 열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4년 연속 '최우수 등급'

부천병원이 지난 2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3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천병원은 이로써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30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중 경기도 내 상위 40%에 해당하는 최우수 등급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부천병원을 포함해 총 13개 기관이다.



서울병원 동정

최득린 교수 정년퇴임 및 명예교수 임명

서울병원은 2월 26일 오후 4시 병원 내 동은대강당에서 영상의학과 최득린 교수의 정년퇴임식 및 명예교수 임명식을 가졌다. 2월 28일자로 정년퇴임한 최득린 교수는 1978년 순천향대학병원 영상의학과 레지던트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36년을 순천향대 서울병원에 근무했다. 근무 기간 동안 영상의학교실 주임교수, 임상교과감 등을 역임했고 대외적으로는 대한자기공명영상학회 회장을 비롯해 대한방사선학회 의무보험이사 등을 맡아 대학과 학회 발전에 헌신했다.

장재철 교수 '신경외과 보형진료 지침서' 집필 참여

서울병원 신경외과 장재철 교수가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정용구)와 대한신경외과학연구재단(이사장 변박장)이 공동 출판한 《신경외과 보형진료 지침서》의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최초로 보험과 관련한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는 두부, 척추, 말초신경, 신경자단술, 이학적 요법, 영상진단, 치료재료, 치료약제 등 총 8개 분야로 나누어 집필되었다.

이재철 교수 미국경추외과학회 구원

이재철 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지난해 12월(5~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국 경추외과학회(Cervical Spine Research Society) 학술대회에 참석해 <1,358명의 여러 가지 경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장기 추사에서 인접분절의 재수술의 위험인자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구연했다.



부천병원 동정

장안수 교수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1.17.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의학학부 신입 준회원으로 위촉.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회원은 대내외적으로 학문적 우월성을 인정받는 석학 중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예비심사위원회 심사, 회원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 총회인준 등 엄격한 심사 제도를 거쳐 선발.

김진국 교수 / 신장내과 정귀애 교수 / 외과

2.4. 더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제31회 졸업사은회'에서 신장내과 김진국 교수가 교육부장으로서의 공을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으며, 외과 정귀애 교수는 '올해의 교수상'을 수상.

신웅진 교수 / 외과

2.24.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신입이사로 위촉.

《명의 14인의 365일 건강법상》대만 수출

정형외과 임수재, 비뇨기과 김영호,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장안수 교수 등 3명의 교수가 저자로 참여한 《명의 14인의 365일 건강법상》 책자의 저작권이 대만으로 수출돼 번역판 도서가 발행될 예정.

문종호, 고봉민 교수 / 소화기내과

2.5~12. 미국 PNGS 학회에서 주제발표.

김세형 교수 / 중환자내과

2.13~16. 타이완 국제혈액중양학회에서 주제발표.

정한용 교수 / 정신건강의학과

2.15~19. 미국 ANPA 학회에서 주제발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Open Card 시행, 초진환자 전용창구 개설 등 환자편의 증대

부천병원이 1월 24일(금)부터 내원환자 편의 증대를 위한 Open Card 시스템을 시행했다. 1단계로 교직원 본인 및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추후 내원객 전체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Open Card 동의서를 등록하면 원무접수→외래진료 시행→검사시행→외래진료→원무수납→귀가로 진료비 결제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2월 14일(금) 본관 1층 로비에 초진환자 전용창구를 개설해 첫 환자들이 병원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SU-III 고도화사업 KICK-OFF 행사 개최

2월 21일(금) 차세대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고도화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Re-Start 행사가 부천병원 순의홀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중앙의료원 의료원장, 기획조정실장, 정보기획실장 부천병원 원장단, SU-III 고도화 사업 실무담당자, 현대정보기술 및 동은정보기술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키노트 스피치, 고도화사업 수행계획이 발표된 데 이어 출정식이 진행됐다.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제 17대 병원장에 이문수 교수 연임

2010년부터 4년간 천안병원 경영을 맡아온 이문수 교수가 2014년 1월 1일 부로 연임되었다. 임기는 2년. 순천향대학교 의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손꼽히는 위암수술 명의. 이 원장은 2010년 취임해 2013년까지 15대, 16대 병원장을 역임하는 동안 고객만족 프로젝트, 사랑나눔기운동 등을 통해 독창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해 왔으며, 지방 중소 도시 소재 병원으로는 드물게 1일 외래환자 3천 명 시대를 여는 등 병원의 발전을 크게 이끌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17대 천안병원 취임과 동시에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부속병원 관리원장으로도 취임했다. 임기는 2년으로 병원장 임기와 같다.



지역 노인들 대상으로 변비강좌 열어

천안병원은 1월 15일 천안시 병천읍 소재 아우내은빛복지관을 찾아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변비 관련 건강강좌를 열었다.

자살 시도자를 위한 음악치료 콘서트 개최

천안병원은 1월 21일 별관 강당에서 자살 시도자들의 마음을 쓰다듬는 '음악치료 콘서트'를 개최했다. 콘서트는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생명사랑위기관리센터에 등록된 70여 명의 자살 시도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병원은 2013년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거점센터로 지정받았으며, 자살 시도자들의 정서적 안정 회복과 재활 등 다양한 재시도 예방 활동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한편 천안병원 응급의료센터에는 한 해 평균 500명이 넘는 자살 시도자들이 들어온다.

성무용 천안시장, 민생현장 방문 차원 천안병원 내방

민생현장을 방문 중인 성무용 천안시장이 지난 1월 23일 천안병원을 전격 방문했다. 성 시장은 이문수 병원장과 교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격의 없는 환담을 나누며 의견들을 청취했다. 응급환자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 등 환자의 편의와 안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해 적극적인 해결과 개선을 약속했다. 천안시장이 천안병원을 방문한 것은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소화기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개최

천안병원은 지난 1월 25일 교육관 강당에서 소화기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열었다. '위장관 질환'과 '간 및 췌장 질환'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수강좌에서는 질환들의 최신 진단과 치료법들을 다뤘다. 연수강좌에는 70여 명의 소화기내과 개원의들이 참가했으며, 총 7개의 연제로 진행되었다.

제9회 대장암 환자의 날 행사 성료

천안병원은 지난 2월 21일 오후 2시 병원 교육관 강당에서 대장암 환자의 날 행사를 열었다. 대장암 수술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행사로 100여 명의 환자들이 참여했으며 6개 주제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헌혈로 환자사랑 실천

천안병원은 2월 21일 병원 주차장에서 헌혈행사를 열었다. 헌혈행사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열렸으며, 바쁜 일과시간 중에도 많은 교직원들이 틈을 내어 헌혈에 참여했다. 교직원들은 헌혈 후 헌혈증서를 모아 환자를 돕기 위해 원무 팀에 전량 기증했다.

소화기내과 김홍수 교수, 비행기에서 심장마비 승객 살려

천안병원 김홍수 교수(소화기내과)가 운항 중이던 비행기 안에서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살려 화제가 되고 있다. 김 교수는 지난 7일 학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호주로 향하던 중 이륙 얼마 후 한 50대 남성이 갑자기 실신하는 상황을 맞았다.



확인 결과 남성은 심장마비로 추정되었고, 김 교수는 비행기에 동승 중이던 충북대 한정호 교수와 함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두 교수의 발 빠른 응급처치로 남성은 10여분 후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되찾았고, 이후에도 두 교수는 수액을 투여하는 등 도착할 때까지 구호활동을 계속했다. 다행히 남성은 상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고, 브리즈번 공항 도착 후 공항에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로 무사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간질환 전문의인 김 교수는 평소에도 환자진료와 연구 활동에 매우 열정적인 것은 물론, 남몰래 불우이웃돕기 활동도 지속하는 등 늘 주위에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의료봉사단 창단 30년 맞아 '지역사랑 인간사랑 실천' 다짐

의료봉사단이 1월 23일 신년회를 갖고 다시 한 번 의료봉사로 '지역사랑 인간사랑' 실천을 다짐했다. 창단 30주년을 맞는 의료봉사단은 그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다. 올해에는 보다 우리 사회를 밝게 만드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사회공헌 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전문치료센터 지정병원 협약

구미병원이 경상북도 소방공무원의 소방전문치료센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 구미병원과 경상북도소방본부(본부장 강철수)는 소방전문치료센터 협약을 체결하고 소방 공무원의 정신보건 및 신체의 건강증진에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제18대 박래경 병원장 취임식 및 시무식

박래경 병원장이 제18대 병원장에 연임됐다. 구미병원은 1월 2일 취임식 및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14년을 맞이했다. 박래경 병원장은 "수익 증대 비용 절감"을 목표로 진료 혁신, 최첨단 장비 도입, 전문 진료 센터를 확충해 경쟁력 있는 병원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으며 김성구 의료원장은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을 제시하며 "날로 어려워지는 의료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하루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라"는 주문과 함께 교직원들을 치하했다.



병원경영 목표 공유, '7UP'으로 성장 도모

구미병원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2014년 경영목표를 공유, 팀을 이끌어가는 중간관리자의 특색 있는 능력을 주문했다. 1월 23일(목), 향설교육관에서 이태일 부원장은 전년도 경영실적, 의료시장의 현실 등을 설명하며, 2014년 7% 성장을 목표로 경영수지 개선, 진료혁신, 조직문화 활성화, 지역사회 일체감 유지를 통해 경영진, 의료진, 간호부, 행정팀, 진료지원팀, 환자, 지역사회가 소통과 팀워크를 이뤄 '세븐 UP'을 할 수 있는 순천향을 만들자고 피력했다.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A등급' 획득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실시된 '2013년 특수건강진단기관평가' 결과에서 구미병원이 'A등급'을 획득했다. 특수건강진단은 유기용제, 중금속, 소음, 분진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강진단으로 이번 평가는 전국 145개 특수건강진단기관을 대상으로 분석 능력, 건강진단 결과 및 판정의 신뢰도, 시설·장비 성능, 교육 이수 등 총 4개 부문 73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구미병원은 분석능력, 판정 신뢰도 시설·장비 성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수건강진단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도 면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 총회 성료

'순천향구미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회 및 정기총회가 2월 25일 향설교육관에서 개최됐다.

후원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보고 및 2014년 지원사업계획과 조직구성 소개 순으로 진행됐으며 박래경 병원장이 고문으로 위촉됐다. 이희경 대표는 "2014년에는 아동학대 지원사업에서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서, 소방서, 지역사회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아동방임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등에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갖출 것"임을 다짐했다.



임철완 교수 / 외과

2,21~24,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PBCS 학회에서 주제발표.

박은수 교수 / 성형외과

2,26~28, 필리핀에서 개최된 PCS 학회에서 주제발표.

박춘식 교수 / 호흡기알레르기내과

2,27~3,7 미국에서 개최된 AAAAI 학회에서 주제발표.

박성규 교수 / 중앙혈액내과

3,6~9, 일본에서 개최된 JBMT 학회에서 주제발표.

이민희 교수 / 영상의학과

3,6~12, 미국에서 개최된 ECR 학회에서 주제발표.

천안병원 동정

홍세용 교수/신장내과

2014.3~ 초빙교수로 임용

이상열 교수 / 피부과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 인터월드 2014년판(32nd Edition)》에 등재.

이승진 교수 / 심장내과

2014.2~2015.2 미국 메이요 클리닉으로 해외연수

여승규 교수 / 방사선종양학과

1,15~20 미국 2014 GIS에서 포스터 발표

전섭 교수 / 산부인과

2,6~10 미국 NRG Oncology Semi-Annual Meeting에서 구연발표

김성용 교수 / 외과

2,21~24 싱가포르 3rd Asia-Pacific Breast cancer Summit에서 포스터 발표

이치규 교수 / 이비인후과

2,24~28 미국 ARO 2014 Midwinter Meeting에서 포스터 발표

3월 신규 교원

안과 박성용 교수 / 소화기내과 이호성 교수, 정영규 교수 / 내분비내과 류아정 교수 / 류머티스내과 장성혜 교수 / 외과 이득영 교수 / 신경외과 박태환 교수 / 재활의학과 김운태 교수 / 핵의학과 최지연 교수 / 진단검사의학과 조경일 교수 / 병리과 정혜연 교수 / 응급의학과 이동욱 교수

2월 정년퇴임

신장내과 홍세용 교수 / 흉부외과 이철세 교수

2월 퇴직 교원

영상의학과 김형환 교수 / 병리과 조현득 교수 / 소아청소년과 한원호 교수 / 안과 노인호 교수 / 소화기내과 김종화 교수, 박재만 교수, 조영걸 교수, 김지현 교수 / 내분비내과 모상일 교수 / 정형외과 김태현 교수 / 신경외과 오재상 교수 / 종합검진센터 현경희 교수

구미병원 동정

안지훈 교수 / 심장내과

1,20~25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ASE학회 참석

신임교원

내분비내과 정지윤 / 신경과 박재한
정형외과 황정모 / 성형외과 오화영
소화기내과 최문한 / 심장내과 이현욱

신용과 성실의 의약품 유통 Since 1968
대한민국 의약품 유통의 표준
(주)동원약품이 앞장서겠습니다

신용과 성실, 열정과 정성을 바탕으로
정도경영을 추구하는 동원약품은
창조와 도전의 개척정신을 기업이념으로
최적/최상의 의약품 유통 시스템과
고객 최우선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경인 아라뱃길 물류단지에
4,500평 규모의 최고의 물류 시스템을 갖춘
동원약품 수도권 물류센터 준공을 앞두고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원약품 및 계열사 연락처

[서울/경기] (주)석원약품
(주)동원팜
(주)동원팜 의정부지점

대표전화 (02)2601-1251
대표전화 (02)440-3000
대표전화 (031)850-3500

fax (02)2601-5031
fax (02)429-3257
fax (031)829-8208

[강원/원주] (주)동원약품 원주지점
[대구 경북] (주)동원약품
(주)동보약품

대표전화 (033)745-0501
대표전화 (053)381-5555
대표전화 (053)755-4444

fax (033)745-9804
fax (053)381-5551
fax (053)756-3345

[대전/충청] (주)대전동원약품
[진주/경남] (주)경남동원약품
[제 주] (주)제주동원약품

대표전화 (042)622-9999
대표전화 (055)759-3333
대표전화 (064)757-0111

fax (042)626-6644
fax (055)759-3341
fax (064)745-8895

도어 서비스 ‘하루하루가 신나요.’

서울병원 장애인 고용 귀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본관 후문 출입구에 가면 노란 조끼를 입고 출입문을 열어주는 김에찬 씨를 만날 수 있다.

약간 어수룩한 말씨에, 눈이 살짝 찢어졌지만 씩씩한 목소리로 고객을 맞이한다. 예상치 못한 도어 서비스를 받은 고객

들의 반응은 각양각색. 대부분 무덤덤하지만 예찬 씨를 보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이도 있고 묵례로 감사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 교직원들이나 병원을 자주 방문하는 환자분들은 어느새 익숙해져 반가운 얼굴로 예찬 씨를 대한다.

특히,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는 분들은 예찬 씨의 최대 수혜자다. 손사용이 불편한 데다 출입구 바깥쪽이 경사가 저 있고, 자동문도 아니다 보니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난해 8월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예산 씨에게 일이 힘들지 않냐고 물으니 "이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신나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주면 뿌듯해요. 가장 기쁜 것은 월급 타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처음엔 엄마가 막 우시면서 '고맙다. 장하다 우리 아들.'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재미있게 일할 거예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예찬 씨를 본 사람들이라면 알겠지만 그는 중증 장애인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면서 이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긴 것이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은 현재 예산 씨를 비롯해 도어 서비스, 외래 안내를 하거나 콜센터 등에서 일하는 21명의 중증 장애인에게 새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순천향, 인술(仁術)40년 100년을 이어갑니다

하늘뜻 받들어
인간사랑을 실천합니다
순천향의 가치는
생명 존중과 환자의 행복입니다